

강북구가족센터
다문화가족지원사업
관련 욕구조사 결과

2026년 1월

본 분석결과는 강북구 내 결혼이민자 및 다문화가족을 대상으로 센터의 프로그램 개선 및 서비스 욕구를 알아보기 위해 2025년 11월에서 12월에 강북구 지역 내 다문화가족 총 174명을 대상으로 진행한 설문조사 중 missing data가 있는 자료를 제외한 총 144부의 자료를 바탕으로 결혼이민자 80명, 배우자 64명의 응답을 분석한 것이다. 단, 결혼이민자와 배우자를 쌍으로 조사한 것이 아니라 각각 조사되었기 때문에 결혼이민자와 배우자의 조사결과를 부부 단위로 해석하기 어려운 한계가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본 분석결과는 향후 강북구가족센터 다문화가족 사업의 방향성 및 내용에 적용할 계획이다.

목 차

I. 조사결과

① 다문화가족(결혼이민자(외국인 포함)와 배우자)의 일반적 배경 및 가족센터 인식 조사결과

1. 일반적 배경	10
2. (강북구)가족센터 인지도 및 정보 경로	13
3. (강북구)가족센터 프로그램 인지도 및 참여 여부	14
4. 가족센터 프로그램 운영방식에 대한 욕구	18

② 다문화가족 내 결혼이민자의 한국생활과 가족생활 적응 및 관련 욕구 조사결과

1. 일반적 배경	20
2. 가족에 대한 일반적 실태	21
3. 한국생활 적응 및 관련 욕구	22
4. 가족생활 적응 및 관련 욕구	25
1) 배우자(가족)와의 관계에 대한 주관적 인식	25
2) 가족생활 역할분담 실태	26
3) 가족생활 내 어려운 점	27
4) 향후 예측되는 어려움에 대한 주관적 인식	30
5) 가족생활 관련 프로그램 욕구	31
5. 경제생활 적응 및 관련 욕구	34
1) 경제활동 실태	34
2) 향후 경제활동을 위한 프로그램 욕구	35
6. 차별경험	37

③ 다문화가족 내 배우자의 가족생활 적응 및 관련 욕구 조사결과

1. 일반적 배경	39
2. 가족에 대한 일반적 실태	40

3. 가족생활 적응 및 관련 욕구	41
1) 배우자(가족)와의 관계에 대한 주관적 인식	41
2) 가족생활 역할분담 실태	43
3) 가족생활 내 어려운 점	44
4) 향후 예측되는 어려움에 대한 주관적 인식	46
5) 가족생활 관련 프로그램 욕구	47
4. 경제생활 적응 및 관련 욕구	
1) 경제활동 실태	50
2) 배우자(결혼이민자)에 대한 경제적 활동 요구 여부	52

▣ 다문화가족(결혼이민자와 배우자)의 자녀 관련 욕구 조사결과

1. 자녀 이중언어환경 조성 어려움	53
2. 자녀양육의 어려움	55
3. 일반적인 자녀 관련 프로그램 욕구	57
1) 가족센터 내 다문화가족 자녀 관련 프로그램 인지 및 참여 욕구 ..57	
2) 가족센터 내 다문화가족 자녀 대상 프로그램 참여 이유	59
3) 가족센터 내 자녀 관련 프로그램 운영 욕구	60
4. 자녀의 연령대별 프로그램 지원을 위한 부모의 욕구.....	62
1) 6~13세 자녀의 기초학습지원을 위한 부모의 욕구	62
2) 8~19세 자녀의 진로설계지원을 위한 부모의 욕구	67
① 진로설계지원(진로) 관련 욕구	67
② 진로설계지원(정서) 관련 욕구	71
3) 13세 이하 자녀를 둔 자녀의 언어발달지원을 위한 부모의 욕구	74

Ⅱ. 결론

표 목 차

<표 1> 조사대상자 특성	11
<표 2> 조사대상자 성별	11
<표 3> 조사대상자 연령	11
<표 4> 조사대상자 거주지역	11
<표 5> 조사대상자 가족형태	12
<표 6-1> 조사대상자 경제 상태에 대한 주관적 인식	12
<표 6-2> 조사대상자 정부 지원 여부	12
<표 7-1> 가족센터 (또는 다문화가족지원센터) 인지도 여부	13
<표 7-2> 가족센터 프로그램 정보 인지 경로	13
<표 8-1> 가족센터 프로그램 인지 및 참여에 관련된 질문	15
<표 8-2> 가족센터 프로그램 참여자의 이용 만족도	16
<표 8-3> 가족센터 프로그램에 참여하지 않는 이유	17
<표 8-4> 가족센터 외 타 기관 이용 여부	18
<표 9-1> 가족센터 프로그램 운영 요일 욕구	18
<표 9-2> 가족센터 프로그램 운영 시간 욕구	19
<표 9-3> 가족센터 프로그램 진행방식 욕구	19
<표 10> 결혼이민자의 한국 거주기간 여부	20
<표 11> 결혼이민자가 소지하고 있는 비자(VISA) 형태	20
<표 12> 결혼이민자의 한국 국적 취득 여부	21
<표 13-1> 결혼이민자의 혼인 상태	21
<표 13-2> (배우자가 있는 경우) 혼인 형태	22
<표 13-3> (배우자가 있는 경우) 배우자와의 나이 차이	22
<표 13-4> 자녀수 여부	22
<표 14-1> 한국생활 적응의 어려운 점	23
<표 14-2> 한국 생활적응에 대한 욕구	23
<표 14-3> 한국 생활적응 프로그램 욕구	24
<표 14-4> 한국어 및 한국생활 적응 프로그램 참여 이유	25

<표 14-5> 한국어 및 한국생활 적응 프로그램 불참 이유	25
<표 15> 배우자(가족)의 관계에 대한 주관적 인식	26
<표 15-2> 가족 내 역할분담 실태	27
<표 16-1> 부부관계 어려움	28
<표 16-2> 부모역할 어려움	29
<표 16-3> 가족과의 여가	30
<표 17> 미래에 대한 두려움 인식 여부	30
<표 18-1> 가족생활 관련 프로그램의 필요성 여부	31
<표 18-2> 가족생활 관련 프로그램 참여 의사	32
<표 18-3> 가족생활 관련 프로그램 참여 이유	32
<표 18-4> 가족생활 관련 프로그램 참여 형태에 대한 선호도	32
<표 18-5> 가족관계에 대한 전문가 개입여부 선호도	32
<표 18-6> 가족이 함께 하는 여가활동 선호도	33
<표 18-7> 가족생활 관련 프로그램 불참 이유	33
<표 19-1> 경제활동 경험 유무	34
<표 19-2> (경제활동 경험이 있는 경우) 만족도 여부	34
<표 19-3> (경제활동에서 만족하다고 한 경우) 이유	35
<표 19-4> (경제활동에 대해 만족하지 않다고 한 경우) 이유	35
<표 19-5> (경제활동 경험이 없다면 경우) 그 이유	35
<표 19-6> 선호하는 경제활동 형태	36
<표 19-7> 취업(이직)을 위해 가장 필요한 도움 여부	36
<표 19-8> 직업 관련 프로그램 욕구	37
<표 20-1> 차별 경험 유무	38
<표 20-2> (차별 경험이 있는 경우) 경험 장소	38
<표 20-3> 다문화가족인식 개선의 필요성	38
<표 21> 배우자(결혼이민자)의 한국 거주기간 여부	39
<표 22> 결혼이민자가 소지하고 있는 비자(VISA) 형태	39
<표 23> 결혼이민자의 한국 국적 취득 여부	40
<표 24-1> 배우자의 혼인 상태	40
<표 24-2> (배우자가 있는 경우) 혼인 형태	41

<표 24-3> (배우자가 있는 경우) 배우자와의 나이 차이	41
<표 24-4> 자녀수 여부	41
<표 25> 배우자(가족)의 관계에 대한 주관적 인식	42
<표 26> 가족 내 역할분담 실태	43
<표 27-1> 부부관계 어려움	44
<표 27-2> 부모역할 어려움	45
<표 27-3> 가족과의 여가	46
<표 28> 미래에 대한 두려움 인식 여부	46
<표 29-1> 가족생활 관련 프로그램의 필요성 여부	47
<표 29-2> 가족생활 관련 프로그램 참여 의사	48
<표 29-3> 가족생활 관련 프로그램 참여 이유	48
<표 29-4> 가족생활 관련 프로그램 참여 형태에 대한 선호도	49
<표 29-5> 가족관계에 대한 전문가 개입여부 선호도	49
<표 29-6> 가족이 함께 하는 여가활동 선호도	49
<표 29-7> 가족생활 관련 프로그램 불참 이유	50
<표 30-1> 경제활동 경험 유무	51
<표 30-2> (경제활동을 한 경험이 있다고 한 경우) 경제활동 형태	51
<표 30-3> (경제활동을 한 경험이 있다고 한 경우) 경제활동 요일	51
<표 30-4> (경제활동을 한 경험이 있다고 한 경우) 경제활동 만족도	51
<표 31-1> 배우자(결혼이주여성)의 경제활동 요구 여부	52
<표 31-2> (배우자(결혼이민자)가 경제활동을 해야 한다고 생각하는 경우) 그 이유	52
<표 31-3> (배우자(결혼이민자)가 경제활동을 하지 않아야 한다고 생각한 경우) 그 이유..	53
<표 32-1> 자녀의 결혼이민자 모국어 사용 여부	54
<표 32-2> 자녀의 주 사용언어	54
<표 32-3> 이중언어환경조성에 대한 어려움	55
<표 33> 자녀양육의 어려움	56
<표 34> 가족센터 내 다문화가족자녀 관련 프로그램 인지 및 참여 여부	58
<표 35> 가족센터 내 다문화가족 자녀 대상 프로그램 참여 이유	59
<표 35-1> 자녀 관련 프로그램 운영 요일과 시간에 대한 욕구	60
<표 35-2> 자녀 대상 프로그램에 참여하기 어려운 이유	61

<표 36-1> 6-13세 자녀가 어려워하는 학습영역	62
<표 36-2> 학습의 어려움에 대한 이유	63
<표 36-3> 부모로서 자녀를 돕기 어려운 정도	64
<표 36-4> 자녀학습지도의 어려운 이유	64
<표 36-5> 자녀학습을 위해 이용하고 있는 방법	65
<표 36-6> 자녀학습 향상을 위한 지원 프로그램의 필요성	65
<표 36-7> 자녀학습 지원을 위해 필요로 하는 도움	66
<표 36-8> 자녀학습 도움에 대한 부, 모로서의 감정	67
<표 37-1> 자녀의 진로(장래희망) 인식 여부	69
<표 37-2> 자녀가 진로에 대한 정보를 어디에서 얻고 있는지에 대한 인식	69
<표 37-3> 자녀의 진로탐색 또는 준비과정의 어려움 정도	69
<표 37-4> 자녀의 진로탐색 또는 준비과정에서 어려움	70
<표 37-5> 부모로서 자녀의 진로 도움에 대한 어려움 정도	70
<표 37-6> 자녀진로 도움에 있어 어려운 이유	70
<표 37-7> 자녀 진로설계지원 프로그램별 필요 정도	71
<표 38-1> 자녀의 정서에 대한 인식 정도	72
<표 38-2> 자녀가 정서적 어려움을 경험하고 있는 이유	73
<표 38-3> 자녀 대상 필요로 하는 정서지원 프로그램	73
<표 39-1> 자녀의 언어발달 관련 어려움	74
<표 39-2> 자녀의 언어발달 어려움 이유	75
<표 39-3> 언어발달 서비스 수혜 과정에 있어서의 어려움	75
<표 39-4> 언어발달 서비스 대기 기간 동안 필요한 지원서비스 욕구	76

I. 조사결과

① 다문화가족(결혼이민자(외국인 포함)와 배우자)의 일반적 배경 및 가족센터 인식 조사 결과

1. 일반적 배경

- 조사대상자의 대다수가 결혼이민자(귀화 포함)(75명, 94%)이며(<표1> 참조). 여성(78명, 98%)임.(<표2> 참조)
- 결혼이민자의 연령대는 30대(36명, 45%), 40대(28명, 35%)순으로 나타났으며, 배우자의 연령대는 40대(25명, 39%), 50대(20명, 31%) 순으로 나타남(<표3> 참조)
- 결혼이민자와 배우자의 거주지는 우이권역을 제외하고 골고루 분포되었으나, 그 중에서도 수유권역(인수동, 수유1~3동) 거주가 가장 많은 것으로 나타남 (<표4> 참조)
- 조사대상자의 가족형태 조사결과(<표5> 참조), 결혼이민자와 배우자 모두 2세대가구(부부+자녀 구성)가 25명(31%)으로 가장 많았음. 그러나 두 번째로 높은 경우는 두 집단 사이에 차이를 보이고 있음. 결혼이민자는 한부모가구(결혼이민자 또는 배우자+자녀)가 21명(26%)으로 높았으며, 배우자는 3세대 가구(부부+자녀+조부모)가 16명(25%)로 높았음.
- 조사대상자의 경제 상태에 대한 주관적 인식 조사 결과(<표6-1> 참조), 결혼이민자와 배우자 모두 '다소 어렵다'(각각 35%, 58%)로 응답하였으며, 특히 배우자의 경우 과반수 이상이 더 어렵다고 인식을 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남. 이에 정부 지원을 받고 있는지 여부를 조사한 결과(<표6-2> 참조), 과반수 이상이 '그렇지 않다'고 응답하여, 이들이 사각지대에 놓여 있음을 알 수 있음.

<표 1> 조사대상자 특성

(결혼이민자 N=80/102)

문항	항목	결혼이민자/ N (%)
귀하는 어느 가족구성원에 해당합니까?	① 결혼이민자(귀화 포함)	75명 / 94%
	② 외국인근로자	5명 / 6%
	③ 기타	-

<표 2> 조사대상자 성별

(결혼이민자 N=80/102, 배우자 N=64/66)

문항	항목	결혼이민자/ N (%)	배우자/ N (%)
귀하의 성별은 무엇입니까?	① 남자	2명 / 3%	59명 / 92%
	② 여자	78명 / 98%	5명 / 8%

<표 3> 조사대상자 연령

(결혼이민자 N=80/102, 배우자 N=64/66)

문항	항목	결혼이민자/ N (%)	배우자/ N (%)
귀하의 나이는 어디에 해당합니까?	① 20~29세	9명 / 11%	3명 / 5%
	② 30~39세	36명 / 45%	11명 / 17%
	③ 40~49세	28명 / 35%	25명 / 39%
	④ 50~59세	7명 / 9%	20명 / 31%
	⑤ 60세 이상	-	5명 / 8%
	⑥ 기타(세)	-	-

<표 4> 조사대상자 거주지역

(결혼이민자 N=80/102, 배우자 N=64/66)

문항	항목	결혼이민자/ N (%)	배우자/ N (%)
귀하의 거주 지역은 어디입니까?	① 번동권역(번1~3동)	19명 / 24%	12명 / 19%
	② 미아권역 (미아동, 삼각산동, 삼양동, 송중동, 송천동)	20명 / 25%	20명 / 31%
	③ 수유권역(인수동, 수유1~3동)	27명 / 34%	24명 / 38%
	④ 우이권역(우이동)	2명 / 3%	8명 / 13%
	⑤ 기타 (구 동)	12명 / 15%	-

<표 5> 조사대상자 가족형태

(결혼이민자 N=80/102, 배우자 N=64/66)

문항	항목	결혼이민자/ N (%)	배우자/ N (%)
귀하의 가구 형태는 어디에 해당되니까?	① 결혼이민자+배우자	14명 / 18%	8명 / 13%
	② 결혼이민자/배우자+자녀	21명 / 26%	15명 / 23%
	③ 결혼이민자+배우자+자녀	25명 / 31%	20명 / 31%
	④ 결혼이민자+배우자+자녀+조부모	15명 / 19%	16명 / 25%
	⑤ 외국인부부	-	1명 / 2%
	⑥ 외국인부부+자녀	2명 / 3%	4명 / 6%
	⑦ 외국인부부+자녀+조부모	-	-
	⑧ 1인가구(혼자)	-	-
	⑨ 기타 ()	3명 / 4%	-

<표 6-1> 조사대상자 경제 상태에 대한 주관적 인식

(결혼이민자 N=80/102, 배우자 N=64/66)

문항	항목	결혼이민자/ N (%)	배우자/ N (%)
귀하(가구원 모두 포함)가 느끼시는 현재 가구의 경제적 상태는 어느 정도라고 느끼시나요?	① 매우 어렵다	6명 / 8%	4명 / 6%
	② 다소 어렵다	28명 / 35%	37명 / 58%
	③ 다소 여유롭다	23명 / 29%	16명 / 25%
	④ 매우 여유롭다	2명 / 3%	1명 / 2%
	⑤ 잘 모르겠다/응답거부	21명 / 26%	6명 / 9%

<표 6-2> 조사대상자 정부 지원 여부

(결혼이민자 N=80/102, 배우자 N=64/66)

문항	항목	결혼이민자/ N (%)	배우자/ N (%)
현재 귀하 및 가구 구성원이 정부 지원을 받고 계십니까? (아동수당, 교육활동비 제외)	① 예	17명 / 21%	12명 / 19%
	② 아니오	54명 / 68%	47명 / 73%
	③ 잘 모르겠다/응답거부	9명 / 11%	5명 / 8%

2. (강북구)가족센터 (또는 다문화가족지원센터) 인지도 및 정보 경로

- 「강북구가족센터」에 대한 인지도 조사결과(<표7-1> 참조), 결혼이민자와 배우자 모두 과반수 이상(각각 86%, 73%)이 '들어봤고, 이용해 봤음'이라고 응답하였음.
- 가족센터 또는 다문화가족지원센터 프로그램 정보를 어떻게 알게 되었는지 조사한 결과(<7-2> 참조), 결혼이민자의 경우 '친구나 지인 소개'(32명, 40%), '배우자 또는 동거인 소개'와 '인터넷 검색'(각 9명, 11%) 순으로 나타나, 공식적인 홍보보다 친구 또는 배우자의 소개가 더 높은 영향력을 갖고 있음을 알 수 있었다. 배우자의 경우 '자신의 배우자 또는 동거인의 소개'(13명, 28%), '친구나 지인 소개'(11명, 23%) 순으로 나타나, 현재 가족센터를 이용하고 있는 다문화가족 회원들을 통한 홍보를 통한 접근 확대를 꾀할 필요가 있음을 알 수 있음.

<표 7-1> 가족센터 (또는 다문화가족지원센터) 인지도 여부

(결혼이민자 N=80/102, 배우자 N=47/66)

문 항	항 목	결혼이민자/ N (%)	배우자/ N (%)
귀하는 강북구가족센터(혹은 다문화가족지원센터)를 들어본 적이 있으신가요?	① 들어봤고, 이용해 보았음 (7-1로 이동)	69명 / 86%	47명 / 73%
	② 들어보았지만, 이용해보지 않음 (7-4로 이동)	9명 / 11%	16명 / 25%
	③ 들어본 적도 없고 이용한 적도 없음 (7-4로 이동)	2명 / 3%	1명 / 2%

<표 7-2> 가족센터 프로그램 정보 인지 경로

(결혼이민자 N=80/102, 배우자 N=47/66)

문 항	항 목	결혼이민자/ N (%)	배우자/ N (%)
강북구가족센터 혹은 프로그램 정보를 알게 된 경로는 무엇입니까?	① 친구나 지인(가족, 친척) 소개	32명 / 40%	11명 / 23%
	② 배우자 또는 동거인 소개	9명 / 11%	13명 / 28%
	③ 주민센터 소개	3명 / 4%	7명 / 15%
	④ 학교, 유치원, 보육시설 소개	7명 / 9%	4명 / 9%

⑤ 지역 내 타기관 소개	2명 / 3%	2명 / 4%
⑥ 인터넷 검색(홈페이지)	9명 / 11%	8명 / 17%
⑦ SNS(페이스북, 인스타 등)	8명 / 10%	1명 / 2%
⑧ 카카오톡, 라인, 위챗, ZALO 등	8명 / 10%	1명 / 2%
⑨ 포스터, 전단지, 안내문 등	2명 / 3%	-
⑩ 신문, 라디오, TV 등(언론보도)	-	-
⑪ 기타()	-	-

3. (강북구)가족센터 프로그램 인지도 및 참여 여부

- 강북구가족센터 프로그램에 대한 인지 및 실제 참여 여부를 조사한 결과(<표 8-1>참조), 결혼이민자의 경우 「다문화가족 자녀와 관련 프로그램(예: 다문화가족자녀성장지원사업, 진로설계지원사업, 기초학습지원사업)」, 「아이돌봄서비스」, 「결혼이민자 직업훈련 프로그램 및 패키지 프로그램 그리고 상담사업」에 대한 인지도는 타 프로그램보다 높았으나, 실제 참여 및 이용 여부는 낮은 것으로 나타났다. 실제 참여는 「결혼이민자 역량강화사업」과 「다문화가족자녀 언어발달지원사업」이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배우자의 경우 「결혼이민자 생애주기 프로그램」, 「결혼이민자 직업훈련 프로그램」, 「다문화가족자조모임」 순으로 '알고 있다'고 하였으며, 참여는 「문화프로그램」이 가장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 그렇다면 한 번이라도 센터 프로그램을 이용해 본 경험이 있는 대상자에게 프로그램 이용 만족도 여부를 조사한 결과(<표8-2>참조), 첫째, 과반수 이상의 결혼이민자와 배우자 모두 '센터 프로그램 내용이 도움이 된다', '프로그램 운영시간 및 장소가 편리하다', '센터 직원의 안내 및 응대가 친절하다', '센터 정보를 접하기 쉽다', '전체적으로 가족센터 이용에 만족한다', '센터 프로그램에 다시 참여할 의향이 있다'고 하였음. 이러한 결과를 바탕으로 다문화가족 중 가족센터 프로그램에 한 번이라도 참여를 하게 하면 그 뒤 자연스럽게 연계 프로그램의 지속적

참여가 이루어질 것임을 예측할 수 있음.

- 센터 및 프로그램에 대해 알고 있으나 참여하지 않는 이유를 조사한 결과(<표 8-3>참조), 결혼이민자의 경우 첫 번째로 '시간이 맞지 않아서'(5명, 42%), '거리가 멀어서'(2명, 17%), '프로그램 대상자가 아니라서'(2명, 17%) 순으로 나타났으며, 배우자의 경우 과반수 이상이 '시간이 맞지 않아서'(31명, 63%), '프로그램 대상자가 아니라서'(7명, 14%) 순으로 나타났음. 이 결과를 바탕으로 프로그램 운영 요일 및 시간의 선택에 따른 신중함이 필요하며, 다문화가족의 다양한 욕구에 따른 프로그램의 다양성 또한 고려될 필요가 있음을 알 수 있음.
- 기타 가족센터 외 이용하는 기관이 있다면 어디를 이용하는지 조사한 결과(<표 8-4> 참조), 결혼이민자의 경우 '학교, 어린이집, 유치원'(34명, 29%)을 이용하고 있다고 하였으며, 그 다음으로 '주민센터'(33명, 28%), '종합사회복지관'(10명, 9%) 순으로 나타남. 배우자의 경우 '주민센터'(28명, 46%), '학교, 어린이집, 유치원'(12명, 20%) 순으로 나타남.

<표 8-1> 가족센터 프로그램 인지 및 참여에 관련된 질문

(결혼이민자 N=80/102 배우자 N=64/66)

문항	항목	결혼이민자/ N (%)	배우자/ N (%)
다음은 강북구가족센터에서 진행하고 있는 프로그램입니다. 알고 계신 것과 참여했던 프로그램을 모두 표시해주세요	1) 한국어 교육 (결혼이민자 역량강화지원)	알고있다	22명 / 3%
		참여했다	19명 / 3%
	2) 방문교육서비스	알고있다	29명 / 4%
		참여했다	12명 / 2%
	3) 통·번역서비스	알고있다	29명 / 4%
		참여했다	12명 / 2%
	4) 교육프로그램 (생애주기별 부모교육, 부부교육 등)	알고있다	27명 / 4%
		참여했다	12명 / 2%
	5) 문화프로그램 (가족 체험활동, 공동이가족 문화상자 등)	알고있다	23명 / 3%
		참여했다	16명 / 2%
	6) 결혼이민자 생애주기 프로그램 (초기 정착지원, 중장	알고있다	29명 / 4%
		참여했다	10명 / 2%
			15명 / 4%
			8명 / 2%
			18명 / 4%
			6명 / 1%
			20명 / 5%
			4명 / 1%
			18명 / 4%
			5명 / 1%
			13명 / 3%
			11명 / 3%
			23명 / 6%
			1명 / 0.2%

기패키지)			
7) 다문화가족자녀 언어발달지원	알고있다	18명 / 3%	16명 / 4%
	참여했다	21명 / 3%	9명 / 2%
8) 이중언어 가족환경조성	알고있다	24명 / 4%	15명 / 4%
	참여했다	14명 / 2%	9명 / 2%
9) 다문화가족자녀 기초학습지원	알고있다	27명 / 4%	19명 / 5%
	참여했다	12명 / 2%	5명 / 1%
10) 다문화가족 자녀 성장지원	알고있다	31명 / 5%	21명 / 5%
	참여했다	7명 / 1%	3명 / 1%
11) 다문화가족자녀 진로설계지원	알고있다	34명 / 5%	23명 / 6%
	참여했다	4명 / 1%	1명 / 0.2%
12) 다문화가족 자조모임 (사진동아리, 통번역단)	알고있다	33명 / 5%	22명 / 5%
	참여했다	5명 / 1%	2명 / 0.5%
13) 결혼이민자 직업 훈련프로그램	알고있다	32명 / 5%	23명 / 6%
	참여했다	6명 / 1%	1명 / 0.2%
14) 상담프로그램 (개인·가족상담, 청소년기 자녀 정서 및 진로 상담 등)	알고있다	33명 / 5%	22명 / 5%
	참여했다	4명 / 1%	2명 / 0.5%
15) 다문화가족 사례 관리(온 가족보듬사업)	알고있다	31명 / 5%	22명 / 5%
	참여했다	5명 / 1%	2명 / 0.5%
16) 아이돌봄서비스	알고있다	34명 / 5%	21명 / 5%
	참여했다	3명 / 0.5%	3명 / 1%
17) 공동육아나눔터 (변동, 수유1동, 인수동, 번3동)	알고있다	28명 / 4%	20명 / 5%
	참여했다	10명 / 1.5%	4명 / 1%
18) 기타()	알고있다	8명 / 1%	1명 / 0.2%
	참여했다	-	-

<표 8-2> 가족센터 프로그램 참여자의 이용 만족도

(결혼이민자 N=69/102, 배우자 N=47/66)

문항	항목	결혼이민자/ N (%)	배우자/ N (%)
1. 센터 프로그램 내용이 도움이 된다.	전혀 만족하지 않음	2명 / 3%	-
	별로 만족하지 않음	-	-
	대체로 만족함	18명 / 26%	16명 / 34%

	매우 만족함	49명 / 71%	31명 / 66%
2. 프로그램 운영시간 및 장소가 편리하다.	전혀 만족하지 않음	2명 / 3%	-
	별로 만족하지 않음	2명 / 3%	2명 / 4%
	대체로 만족함	22명 / 32%	17명 / 36%
	매우 만족함	43명 / 62%	28명 / 60%
3. 센터 직원의 안내 및 응대가 친절하다.	전혀 만족하지 않음	2명 / 3%	-
	별로 만족하지 않음	-	-
	대체로 만족함	14명 / 20%	14명 / 30%
	매우 만족함	53명 / 77%	33명 / 70%
4. 센터 정보를 접하기 쉽다. (홈페이지, SNS, 홍보 등)	전혀 만족하지 않음	2명 / 3%	-
	별로 만족하지 않음	1명 / 1%	-
	대체로 만족함	18명 / 26%	17명 / 36%
	매우 만족함	48명 / 70%	30명 / 64%
5. 전체적으로 가족센터 이용에 만족한다.	전혀 만족하지 않음	1명 / 1%	-
	별로 만족하지 않음	-	-
	대체로 만족함	17명 / 25%	17명 / 36%
	매우 만족함	51명 / 74%	29명 / 62%
6. 센터 프로그램에 다시 참여할 의향이 있다.	전혀 만족하지 않음	1명 / 0%	-
	별로 만족하지 않음	2명 / 3%	1명 / 2%
	대체로 만족함	18명 / 26%	19명 / 40%
	매우 만족함	47명 / 68%	26명 / 55%

<표 8-3> 가족센터 프로그램에 참여하지 않는 이유

(결혼이민자 N=12/102, 배우자 N=49/66)

문 항	항 목	결혼이민자/ N (%)	배우자/ N (%)
가족센터를 이용하지 않은 주된 이유는 무엇인가요? (복수선택 가능)	① 시간이 맞지 않아서	5명 / 42%	31명 / 63%
	② 거리가 멀어서	2명 / 17%	5명 / 10%
	③ 프로그램 내용이 별로여서	1명 / 8%	2명 / 4%
	④ 프로그램 대상자에 해당하지 않아서	2명 / 17%	7명 / 14%
	⑤ 진행 장소가 좋지 않아서	-	-
	⑥ 기타 ()	2명 / 17%	4명 / 8%

<표 8-4> 가족센터 외 타 기관 이용 여부

(결혼이민자 N=80/102, 배우자 N=64/66)

문항	항목	결혼이민자/ N (%)	배우자/ N (%)
가족센터 외 주로 이용하는 기관이 있다면 선택해 주세요. (복수선택 가능)	① 주민센터(행정복지센터)	33명 / 28%	28명 / 46%
	② 종합사회복지관	10명 / 9%	1명 / 2%
	③ 여성인력개발센터/고용센터	8명 / 7%	5명 / 8%
	④ 학교/어린이집/유치원	34명 / 29%	12명 / 20%
	⑤ 지역아동센터	4명 / 3%	7명 / 11%
	⑥ 종교기관(교회, 성당, 사찰 등)	7명 / 6%	2명 / 3%
	⑦ 서울글로벌센터	6명 / 5%	-
	⑧ 서울이주여성상담센터	5명 / 4%	2명 / 3%
	⑨ 기타()	9명 / 8%	4명 / 7%

4. 가족센터 프로그램 운영방식에 대한 욕구

- 프로그램이 운영된다면 어느 요일에 하면 좋은지에 대한 조사결과(<표9-1> 참조), 결혼이주여성의 경우 '토요일'(41명, 23%), '수요일'(28명, 16%), '일요일'(27명, 15%) 순으로 나타났으며, 배우자의 경우 '토요일'(33명, 39%), '일요일'(27명, 32%) 순으로 나타나, 대다수가 주말 운영에 대한 욕구가 높음을 알 수 있음.
- 그렇다면 프로그램을 어느 시간에 하면 좋은지에 대한 조사결과(<표9-2> 참조), 결혼이주여성과 배우자 모두 주말 오전과 오후 모두 선호도가 높은 것으로 나타났으며, 결혼이주여성은 평일 오전에 대한 선호도 역시 높은 것으로 나타남.
- 센터 프로그램 운영 방식에 대한 조사결과(<표9-3> 참조), 결혼이민자(43명, 53%)와 배우자(31명, 50%) 모두 과반수 이상이 '대면' 방식을 선호하는 것으로 나타났으며, 그 다음으로 '대면과 온라인'의 혼합형태인 것으로 나타남.

<표 9-1> 가족센터 프로그램 운영 요일 욕구

(결혼이민자 N=80/102, 배우자 N=64/66)

문항	항목	결혼이민자/ N (%)	배우자/ N (%)
앞으로 가족센터 프로그램	① 월요일	18명 / 10%	8명 / 10%

이 운영된다면 주로 어떤 요일에 참여하기 편리하신가요? (복수선택 가능)	② 화요일	23명 / 13%	5명 / 6%
	③ 수요일	28명 / 16%	4명 / 5%
	④ 목요일	19명 / 11%	4명 / 5%
	⑤ 금요일	20명 / 11%	3명 / 4%
	⑥ 토요일	41명 / 23%	33명 / 39%
	⑦ 일요일	27명 / 15%	27명 / 32%

<표 9-2> 가족센터 프로그램 운영 시간 욕구

(결혼이민자 N=80/102, 배우자 N=64/66)

문항	항목	결혼이민자/ N (%)	배우자/ N (%)
프로그램이 진행된다면, 어떤 시간대가 가장 참여하시기 편하신가요? (복수선택 가능)	① 평일 오전(9:00-12:00)	29명 / 24%	8명 / 11%
	② 평일 오후(13:00-17:00)	18명 / 15%	6명 / 9%
	③ 평일 저녁(18:00-21:00)	12명 / 10%	7명 / 10%
	④ 주말 오전	31명 / 26%	20명 / 29%
	⑤ 주말 오후	31명 / 26%	29명 / 41%

<표 9-3> 가족센터 프로그램 진행방식 욕구

(결혼이민자 N=80/102, 배우자 N=64/66)

문항	항목	결혼이민자/ N (%)	배우자/ N (%)
프로그램이 진행된다면, 어떤 방식의 프로그램을 선호하시나요?	① 센터 대면 참여	43명 / 54%	31명 / 50%
	② 온라인(ZOOM 등 비대면)	11명 / 14%	10명 / 16%
	③ 대면과 온라인 병행	26명 / 33%	23명 / 37%

② 다문화가족 내 결혼이민자의 한국생활과 가족생활 적응 및 관련 욕구 조사 결과

1. 일반적 배경

- 조사대상자의 한국 거주기간 조사결과(<표10> 참조), '10년 이상'(37명, 46%), '5~10년'(33명, 41%) 순으로 나타나 초기입국자보다 중·장기거주 결혼이주여성의 숫자가 높음을 알 수 있음.
- 조사대상자의 비자(VISA) 형태 조사결과(<표11>참조), 과반수 이상(55명, 69%)이 '결혼이민자(F-6)'를 소지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남.
- 국적 취득 여부 결과(<표12> 참조), 과반수 이상(47명, 59%)이 '취득하지 않았다'고 함.

<표 10> 결혼이민자의 한국 거주기간 여부

(N=80/102)

문 항	항 목	결혼이민자/ N (%)
귀하의 한국 거주기간은 언제입니까?	① 1~3년	3명 / 4%
	② 4~5년	5명 / 6%
	③ 5~10년	33명 / 41%
	④ 10년 이상	37명 / 46%
	⑤ 기타()	2명 / 3%

<표 11> 결혼이민자가 소지하고 있는 비자(VISA) 형태

(N=80/102)

문 항	항 목	결혼이민자/ N (%)
귀하의 한국 거주기간은 언제입니까?	① 1~3년	3명 / 4%
	② 4~5년	5명 / 6%
	③ 5~10년	33명 / 41%
	④ 10년 이상	37명 / 46%
	⑤ 기타()	2명 / 3%

<표 12> 결혼이민자의 한국 국적 취득 여부

(N=80/102)

문항	항목	결혼이민자/ N (%)
귀하는 현재 한국 국적을 취득하였습니까?	① 예	33명 / 41%
	② 아니오	47명 / 59%
	③ 모르겠음	-

2. 가족에 대한 일반적 실태

- 현재 혼인 상태를 조사한 결과(<표13-1>, <표13-2> 참조), 90%(72명)가 '기혼(배우자 있음)'으로 응답하였으며, 이들의 대다수가 89%(64명)가 '초혼'이라고 응답함.
- 배우자와의 나이 차이 조사결과(<표13-3> 참조), '0~4세', '10~14세'(각 19명, 26%)가 가장 많은 것으로 나타났으며, 연령 차이 역시 획일적이지 않고 다양함을 알 수 있음.
- 자녀수에 대한 조사결과(<표13-4> 참조), '2명'(30명, 38%), '1명'(29명, 36%), '없다'(14명, 18%) 순으로 나타남.

<표 13-1> 결혼이민자의 혼인 상태

(N=80/102)

문항	항목	결혼이민자/ N (%)
귀하의 혼인 상태는 무엇입니까?	① 미혼 및 동거(3으로 이동)	-
	② 기혼(배우자 있음)(2-2로 이동)	72명 / 90%
	③ 별거(2-2로 이동)	-
	④ 이혼(2-4으로 이동)	5명 / 6%
	⑤ 사별(2-4으로 이동)	3명 / 4%

<표 13-2> (배우자가 있는 경우) 혼인 형태

(N=80/102)

문항	항목	결혼이민자/ N (%)
귀하의 혼인 상태는 무엇입니까?	① 미혼 및 동거(3으로 이동)	-
	② 기혼(배우자 있음)(2-2로 이동)	72명 / 90%
	③ 별거(2-2로 이동)	-
	④ 이혼(2-4으로 이동)	5명 / 6%
	⑤ 사별(2-4으로 이동)	3명 / 4%

<표 13-3> (배우자가 있는 경우) 배우자와의 나이 차이

(N=80/102)

문항	항목	결혼이민자/ N (%)
귀하의 혼인 상태는 무엇입니까?	① 미혼 및 동거(3으로 이동)	-
	② 기혼(배우자 있음)(2-2로 이동)	72명 / 90%
	③ 별거(2-2로 이동)	-
	④ 이혼(2-4으로 이동)	5명 / 6%
	⑤ 사별(2-4으로 이동)	3명 / 4%

<표 13-4> 자녀수 여부

(N=80/102)

문항	항목	결혼이민자/ N (%)
귀하의 자녀는 몇 명 있습니까?	① 없음	14명 / 18%
	② 1명	29명 / 36%
	③ 2명	30명 / 38%
	④ 3명	5명 / 6%
	⑤ 4명	2명 / 3%
	⑥ 기타()	-

3. 한국생활 적응 및 관련 욕구

- 조사대상자의 한국생활 적응에 있어서 어려운 점이 무엇인지 조사한 결과(<표 14-1> 참조), 과반수 이상이 '언어 소통'(52명, 65%)과 '자녀 양육 및 교육'(45명, 56%)을 꼽았으며, 그 뒤로 '문화 차이'(39명, 49%), '경제적 어려움'(38명, 48%) 순으로 나타남.

- 이들의 한국생활 적응에 있어 무엇이 더 필요한지에 관한 조사 결과(<표14-2> 참조), '한국어를 배우고 싶다' 욕구가 매우 높은 것으로 나타났으며('매우 그렇다'(38명, 48%), '그렇다'(28명, 35%)), 이들 중 과반수 이상(70%)이 '한국생활 정보를 이해하는데 어려움이 없다'고 응답하였음. 또한 73%(58명)이 '통·번역이나 안내의 도움이 컸다'고 하였으며, 85%(68명)가 '같은 나라 또는 결혼이민자 친구들과 만나고 싶다'고 응답하였음. 이에 관련 프로그램에 대한 욕구 조사 결과(<표14-3> 참조), 조사대상자의 과반수가 중·장기 입국 거주자임에도 불구하고 이들은 '한국어교육'에 대한 욕구가 절대적으로 높음(71명, 89%)을 알 수 있으며, 같은 국적 또는 비슷한 형태의 결혼이주여성과 사회적 관계망 형성에 대한 욕구 역시 매우 높은 것(69명, 86%)으로 나타났음.

<표 14-2> 한국생활 적응의 어려운 점

(N=80/102)

문 항	항 목	결혼이민자/N (%)
한국 생활을 하면서 가장 어려운 점은 무엇입니까?(해당되는 모든 항목에 체크해주세요.)	① 언어 소통	52명 / 65%
	② 경제적 어려움	38명 / 48%
	③ 문화차이	39명 / 49%
	④ 자녀 양육 및 교육	45명 / 56%
	⑤ 사회적 차별	12명 / 15%
	⑥ 행정절차(서류, 공공기관 이용 등)	14명 / 18%
	⑦ 외로움	12명 / 15%
	⑧ 친구 및 이웃관계	6명 / 8%
	⑨ 기타 ()	3명 / 4%
	⑩ 어려움 없음	4명 / 5%

<표 14-2> 한국 생활적응에 대한 욕구

(N=80/102)

문 항	항 목	결혼이민자/N (%)
1) 한국어를 더 배우고 싶다.	전혀 아니다	2명 / 3%
	아니다	12명 / 15%
	그렇다	28명 / 35%
	매우 그렇다	38명 / 48%
2) 한국 생활 정보를 이해하는 데 어려움이 없다.	전혀 아니다	6명 / 8%
	아니다	18명 / 23%
	그렇다	47명 / 59%
	매우 그렇다	9명 / 11%
3) 통번역이나 안내 도움을 받아 유용했다.	전혀 아니다	4명 / 5%
	아니다	18명 / 23%

4) 같은 나라 혹은 결혼이민자 친구들과 만나고 싶다.	그렇다	40명 / 50%
	매우 그렇다	18명 / 23%
	전혀 아니다	2명 / 3%
	아니다	10명 / 13%
	그렇다	44명 / 55%
	매우 그렇다	24명 / 30%

<표 14-3> 한국 생활적응 프로그램 욕구

(N=80/102)

문항	항목	결혼이민자/N (%)
1) 한국어교육은 지속적으로 필요하다.	전혀 아니다	4명 / 5%
	아니다	5명 / 6%
	그렇다	36명 / 45%
	매우 그렇다	35명 / 44%
2) 생활적응 교육(문화, 공공기관 이용 등)이 필요하다.	전혀 아니다	3명 / 4%
	아니다	11명 / 14%
	그렇다	39명 / 49%
	매우 그렇다	27명 / 34%
3) 통번역서비스는 지속적으로 필요하다.	전혀 아니다	3명 / 4%
	아니다	24명 / 30%
	그렇다	28명 / 35%
	매우 그렇다	25명 / 31%
4) 같은 나라 혹은 결혼이민자 친구들과 교류 모임이 필요하다.	전혀 아니다	2명 / 3%
	아니다	9명 / 11%
	그렇다	48명 / 60%
	매우 그렇다	21명 / 26%

○ 한국생활 적응과 관련된 프로그램이 있을 때 참여하는 이유를 조사한 결과(<표 14-4> 참조), '한국생활, 문화 적응을 위해서'(51명, 64%), '일자리, 취업에 도움이 될 것 같아서'(14명, 18%) 순으로 나타났음.

○ 한국생활 적응 관련 프로그램 욕구가 높음에도 불구하고 참여하지 않는 이유를 조사한 결과(<14-5> 참조), 과반수 이상이 '시간이 맞지 않아서'(59명, 74%)라고 응답하였음.

<표 14-4> 한국어 및 한국생활 적응 프로그램 참여 이유

(N=80/102)

문항	항목	결혼이민자/N (%)
한국어 및 생활적응	① 한국 생활·문화 적응을 위해서	51명 / 64%

프로그램이 있다면 참여하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② 일자리·취업에 도움이 될 것 같아서	14명 / 18%
	③ 가족(배우자, 자녀)와 대화하기 위해서	7명 / 9%
	④ 친구·이웃과 소통하기 위해서	2명 / 3%
	⑤ 집과 가까워서	1명 / 1%
	⑥ 비용부담(무료)이 적어서	2명 / 3%
	⑦ 생활정보를 습득하기 위해서	3명 / 4%
	⑧ 기타()	-

<표 14-5> 한국어 및 한국생활 적응 프로그램 불참 이유

(N=80/102)

문항	항목	결혼이민자/ N (%)
한국어 및 생활적응 프로그램에 참여하지 않는 이유는 무엇입니까?	① 시간이 맞지 않아서	59명 / 74%
	② 거리가 멀어서	4명 / 5%
	③ 프로그램 내용이 별로여서	3명 / 4%
	④ 진행 장소가 좋지 않아서	-
	⑤ 가족 혹은 친구들이 도와줘서	1명 / 1%
	⑥ 모국에서 배워서 혼자 할 수 있어서	4명 / 5%
	⑦ 돌봄·가사가 부담이어서	3명 / 4%
	⑧ 프로그램을 하고 있는지 몰라서	3명 / 4%
	⑨ 기타()	3명 / 4%

4. 가족생활 적응 및 관련 욕구

1) 배우자(가족)와의 관계에 대한 주관적 인식

- 배우자(가족)와의 관계에 대해 어떻게 인식하고 있는지 조사한 결과(<표15>참조), 조사대상자의 과반수 이상이 배우자와 '친밀하게 느낀다', '신뢰한다', '대화가 잘된다', '의견 차이가 갈등이 생겨도 잘 해결한다', '함께 시간을 보내는 편이다', '내가 힘들 때 나에게 힘이 된다'고 인식하는 것으로 나타남.
- 그러나 조사대상자의 약 40% 정도는 '부모, 시댁과의 관계를 유지하거나 갈등을 해결하는 것이 어렵다', '자녀양육과 교육문제를 조율하는 것이 어렵다', '가사·돌봄 부담을 나누는 것이 어렵다' 문항에서 어렵다고 응답하여, 향후 부모, 자녀양육 및 돌봄(가사활동 포함) 관련 이슈에 대한 도움이 필요함을 알 수 있음.

- 또한 조사대상자의 10~20% 정도는 배우자(가족)와의 관계에서 부정적 인식을 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나, 이들에 대한 적극적 도움이 있어야 함을 알 수 있음.

<표 15> 배우자(가족)의 관계에 대한 주관적 인식

(N=67/102)

문 항	항 목	결혼이민자/ N (%)
1) 친밀하다고 느낀다.	전혀 아니다	3명 / 4%
	아니다	7명 / 10%
	그렇다	29명 / 43%
	매우 그렇다	28명 / 42%
2) 신뢰한다.	전혀 아니다	1명 / 1%
	아니다	7명 / 10%
	그렇다	31명 / 46%
	매우 그렇다	28명 / 42%
3) 대화가 잘 된다.	전혀 아니다	2명 / 3%
	아니다	10명 / 15%
	그렇다	31명 / 46%
	매우 그렇다	23명 / 34%
4) 의견차이나 갈등이 생겨도 잘 해결한다.	전혀 아니다	1명 / 1%
	아니다	10명 / 15%
	그렇다	34명 / 51%
	매우 그렇다	21명 / 31%
5) 부모·시댁과의 관계를 유지하거나 갈등을 해결하는 것이 어렵다.	전혀 아니다	12명 / 18%
	아니다	26명 / 39%
	그렇다	23명 / 34%
	매우 그렇다	5명 / 7%
6) 자녀 양육과 교육 문제를 조율하는 것이 어렵다.	전혀 아니다	8명 / 12%
	아니다	28명 / 42%
	그렇다	22명 / 33%
	매우 그렇다	7명 / 10%
7) 가사·돌봄 부담을 나누기 어렵다.	전혀 아니다	8명 / 12%
	아니다	28명 / 42%
	그렇다	22명 / 33%
	매우 그렇다	8명 / 12%
8) 함께 시간을 보내는 편이다.	전혀 아니다	3명 / 4%
	아니다	12명 / 18%
	그렇다	29명 / 43%

9) 내가 힘들 때 나에게 힘이 된다.	매우 그렇다	24명 / 36%
	전혀 아니다	4명 / 6%
	아니다	8명 / 12%
	그렇다	29명 / 43%
	매우 그렇다	24명 / 36%

2) 가족생활 역할분담 실태

- 가족생활 역할분담을 어떻게 하고 있는지 조사한 결과(<표15-2> 참조), 과반수 이상이 '가사분담', '자녀양육', '자녀교육', '가족 내 의사결정' 모두 '부부가 함께 한다'고 응답하였음.
- 그러나 조사대상자의 25% 이상이 '가사분담', '자녀양육', '자녀교육'을 혼자 부담하고 있다고 응답하여, 배우자와 역할분담 또는 도움 없이 홀로 책임지고 있는 결혼이주여성에 대한 발굴 및 이들에 대한 도움이 지원되어야 할 것으로 여김.
- 그리고 각 항목에서 약 10% 내외의 조사대상자들이 '그 외 가족(친정, 시댁부모, 친척 등)'이 함께 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나 다문화가족 내 원가족 개입 및 이에 대한 경계 설정 등에 대한 지원 역시 필요함을 알 수 있음.

<표 15-2> 가족 내 역할분담 실태

(N=65/102)

문 항	항 목	결혼이민자/ N (%)
1) 가사분담	본인만	18명 / 28%
	배우자만	-
	부부 같이	40명 / 62%
	그 외 가족 (친정·시댁부모, 친척 등)	7명 / 11%
2) 자녀양육(일상 돌봄, 놀이, 생활습관 지도 등)	본인만	16명 / 25%
	배우자만	2명 / 3%
	부부 같이	36명 / 55%
	그 외 가족 (친정·시댁부모, 친척 등)	11명 / 17%
3) 자녀교육 (학교, 학원, 숙제, 진로 등)	본인만	17명 / 26%
	배우자만	4명 / 6%
	부부 같이	37명 / 57%

	그 외 가족 (친정·시댁부모, 친척 등)	7명 / 11%
4) 가족 내 의사결정	본인만	7명 / 11%
	배우자만	2명 / 3%
	부부 같이	50명 / 77%
	그 외 가족 (친정·시댁부모, 친척 등)	6명 / 9%

3) 가족생활 내 어려운 점

- 현재 부부관계에서 가장 어려운 점이 무엇이 조사한 결과(<표16-1> 참조), '의견 및 문화·가치관 차이로 인한 갈등'(26명, 22%), '경제적 문제'(25명, 21%), '자녀양육문제'(21명, 9%) 순으로 나타남. 결국 다문화가족이 경험하고 있는 경제적 어려움은 의사소통의 어려움을 안고 있는 결혼이주여성에게 있어 부부역할 규정 및 친밀감 형성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칠 수 있음을 예측할 수 있음. 저소득층의 결혼이주여성이 건강한 부부관계를 가질 수 있도록 하기 위한 더 많은 지원과 노력이 요구됨.

<표 16-1> 부부관계 어려움

(N=80/102)

문 항	항 목	결혼이민자/ N (%)
부부관계에서 현재 가장 어려운 점은 무엇입니까? (복수선택 가능)	① 의사소통의 어려움	16명 / 14%
	② 의견 및 문화·가치관 차이로 인한 갈등	26명 / 22%
	③ 경제적 문제	25명 / 21%
	④ 자녀 양육 문제	21명 / 18%
	⑤ 가사·돌봄 부담문제	10명 / 9%
	⑥ 가족·시댁과의 관계 조율	12명 / 10%
	⑦ 기타()	7명 / 6%

- 현재 부모역할을 수행함에 있어 가장 어려운 점이 무엇인지 조사한 결과(<표 16-2>참조), '자녀와의 대화방법' '자녀의 게임, 스마트폰, 인터넷 사용'(각각 21명, 16%)이 가장 어렵다고 하였으며, 그 뒤 '자녀에게 직접 한글을 가르치기 어렵다'(18명, 14%), '결혼이민자 나라의 언어와 문화를 가르치기 어렵다'(21명, 16%) 순으로 나타남. 본 조사대상자의 한국 거주기간이 10년 내외가 많은 점에

비추어, 자녀가 초등 고학년 이상인 경우가 많을 것이라 여김. 즉 사춘기 자녀와의 대화법이나 최근 급변하는 AI 또는 디지털 사용 및 문화에 대한 교육이 보다 적극적으로 이루어질 필요가 있으며, 자녀학습(이중언어교육 포함)에 있어 결혼 이주여성이 적극적으로 참여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한 지원 역시 좀 더 이루어질 필요성이 있음을 알 수 있음.

<표 16-2> 부모역할 어려움

(N=80/102)

문 항	항 목	결혼이민자/ N (%)
부모 역할에 대하여 어떤 어려움이나 고민이 있습니까? (복수선택 가능)	① 어려움 없음	13명 / 10%
	② 자녀와 대화 방법	21명 / 16%
	③ 배우자이나 다른 가족과의 의견 차이	10명 / 8%
	④ 자녀와의 놀이 활동	10명 / 8%
	⑤ 배우자가 자녀교육에 잘 참여하지 않음	9명 / 7%
	⑥ 한국 유치원(어린이집), 학교에 대해 잘 모름	7명 / 5%
	⑦ 자녀에게 한글을 직접 가르치기 어려움	18명 / 14%
	⑧ 결혼이민자나라의 언어와 문화 가르치기	17명 / 13%
	⑨ 자녀의 게임, 스마트폰, 인터넷 사용	21명 / 16%
	⑩ 기타()	2명 / 2%

○ 가족과 함께 하는 여가생활의 어려움이 무엇인지 조사한 결과(<표16-3> 참조), '어려움이 없다'(27명, 33%)가 가장 많은 수를 차지하였으나, 그 뒤로 '시간 및 돌봄 여건이 어려워서'(22명, 27%), '비용이 들어서'(20명, 24%)를 꼽아 경제적 어려움을 경험하는 다문화가족의 여가생활 부족으로 인한 가족기능 약화를 예측해 볼 수 있음.

<표 16-3> 가족과의 여가

(N=80/102)

문 항	항 목	결혼이민자/ N (%)
-----	-----	-----------------

가족과 함께 여가를 할 때 가장 큰 어려움은 무엇입니까? (복수선택 가능)	① 어려움 없음	27명 / 33%
	② 시간 및 돌봄 여건이 어려워서	22명 / 27%
	③ 가족이 함께하려면 비용이 들어서	20명 / 24%
	④ 가족이 함께할 만한 여가활동이 없어서	7명 / 8%
	⑤ 가족이 함께하고 싶지 않아서	6명 / 7%
	⑥ 기타 ()	1명 / 1%

4) 향후 예측되는 어려움에 대한 주관적 인식

○ 앞으로 생활해 나가면서 어려울 것이라 예측되는 것이 무엇인지 조사한 결과 (<표17참조), '경제적 준비, 연금, 저축 등 부족'(48명, 35%)을 가장 많이 꼽았고, 그 뒤로 '언어문화 장벽으로 인한 정보부족'(35명, 25%)으로 나타났음.

<표 17> 미래에 대한 두려움 인식 여부

(N=80/102)

문항	항목	결혼이민자/ N (%)
앞으로의 한국생활에 있어서 미래를 준비하는 데 가장 큰 어려움은 무엇입니까? (복수선택 가능)	① 어려움 없음	5명 / 4%
	② 경제적 준비 연금 저축 등 부족	48명 / 35%
	③ 건강관리 어려움	13명 / 9%
	④ 언어문화 장벽으로 인한 정보 부족	35명 / 25%
	⑤ 가족 부양 관계 문제	9명 / 6%
	⑥ 사회적 지원 부족	10명 / 7%
	⑦ 주거 환경 문제	14명 / 10%
	⑧ 기타()	5명 / 4%

5) 가족생활 관련 프로그램 욕구

○ 가족생활 관련 프로그램의 필요성 여부에 대한 조사 결과(<표18-1> 참조), 조사 대상자의 70% 이상이 '부부 및 가족관계 교육(47명, 67%)', '생애주기별 부모교육(62명, 89%)', '부부 및 부모-자녀상담(51명, 73%)', '배우자의 퇴직 등 노후준비

교육(56명, 80%)', '가족문화체험(58명, 83%)', '가정 내 이중언어환경조성(55명, 79%)' 관련 프로그램이 필요하다고 응답함. 이 중 '생애주기별 부모교육'에 대한 욕구가 높은 것으로 나타남.

<표 18-1> 가족생활 관련 프로그램의 필요성 여부

(N=70/102)

문항	항목	결혼이민자/ N (%)
1) 부부 및 가족관계 교육(소통, 역할, 갈등해결 등)이 필요하다.	전혀 아니다	5명 / 7%
	아니다	18명 / 26%
	그렇다	35명 / 50%
	매우 그렇다	12명 / 17%
2) 자녀 연령에 맞춘 부모교육이 필요하다.	전혀 아니다	2명 / 3%
	아니다	6명 / 9%
	그렇다	44명 / 63%
	매우 그렇다	18명 / 26%
3) 배우자 및 자녀와 관련된 상담이 필요하다.	전혀 아니다	3명 / 4%
	아니다	16명 / 23%
	그렇다	38명 / 54%
	매우 그렇다	13명 / 19%
4) 배우자의 퇴직 등(노후) 준비와 관련된 프로그램이 필요하다.	전혀 아니다	3명 / 4%
	아니다	11명 / 16%
	그렇다	41명 / 59%
	매우 그렇다	15명 / 21%
5) 가족 모두가 참여하는 문화·체험활동이 필요하다.	전혀 아니다	4명 / 6%
	아니다	8명 / 11%
	그렇다	42명 / 60%
	매우 그렇다	16명 / 23%
6) 가정 내 이중언어 환경조성이 필요하다.	전혀 아니다	2명 / 3%
	아니다	13명 / 19%
	그렇다	34명 / 49%
	매우 그렇다	21명 / 30%

- 가족생활 관련 프로그램이 있다면 참여할 의사가 있는지를 질문한 결과(<표 18-2> 참조), 81%(55명)가 참여할 의사가 있다고 응답하였음. 그 이유를 질문한 결과(<표18-3> 참조), 과반수 이상(30명, 59%)이 '자녀양육, 교육능력을 향상시키기 위해'서라고 하였고, 27%(14명)는 '가족, 부부관계 개선을 위해서'라고 응답함. 또한 만약 가족 관련 프로그램이 있다면 어떤 방식을 선호하는지에 대한 질문 결과(<표18-4>참조), 1:1 맞춤형보다 '다른 가족들과 함께'(46명, 74%)하는 방식을 선호하는 것으로 응답함. 그러나 가족관계(부부, 부모관계)에 대한 전문가 개

입 여부에 대한 선호도는 반반으로 나타남(<표18-5> 참조). 마지막으로 가족여가 프로그램 형태에 따른 선호도 조사결과(<표18-6> 참조), '체험 활동'(35명, 21%), '나들이'(30명, 18%), '요리체험'(29명, 18%), '영화, 연극 등 관람'(27명, 16%) 순으로 나타남.

<표 18-2> 가족생활 관련 프로그램 참여 의사

(N=68/102)

문항	항목	결혼이민자/ N (%)
가족 프로그램이 있다면 참여할 의사가 있습니까?	① 예	55명 / 81%
	② 아니오	13명 / 19%

<표 18-3> 가족생활 관련 프로그램 참여 이유

(N=51/102)

문항	항목	결혼이민자/ N (%)
가족 프로그램에 참여하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① 가족·부부관계 개선을 위해	14명 / 27%
	② 자녀 양육·교육 능력 향상을 위해	30명 / 59%
	③ 가족과 함께 시간을 보내기 위해	4명 / 8%
	④ 친구·이웃을 확대하기 위해	-
	⑤ 집과 가까워서	-
	⑥ 비용부담(무료)이 적어서	1명 / 2%
	⑦ 기타()	2명 / 4%

<표 18-4> 가족생활 관련 프로그램 참여 형태에 대한 선호도

(N=62/102)

문항	항목	결혼이민자/ N (%)
가족 프로그램에 참여한다면 어떤 방식을 선호하십니까?	① 다른 가족과 함께	46명 / 74%
	② 우리가족 1:1 맞춤형	16명 / 26%

<표 18-5> 가족관계에 대한 전문가 개입여부 선호도

(N=60/102)

문항	항목	결혼이민자/ N (%)
가족관계(부부·부모관계)에서 전문가 도움이 필요하다고 생각하십니까?	① 예	28명 / 47%
	② 아니오	32명 / 53%

<표 18-6> 가족이 함께 하는 여가활동 선호도

(N=80/102)

문항	항목	결혼이민자/ N (%)
가족이 함께 하는 여가활동으로 어떤 것을 원하십니까? (복수선택 가능)	① 나들이	30명 / 18%
	② 체험 활동	35명 / 21%
	③ 요리 체험	29명 / 18%
	④ 박물관 탐방	17명 / 10%
	⑤ 보드게임 놀이	9명 / 5%
	⑥ 영화·연극 등 관람	27명 / 16%
	⑦ 놀이로 배우는 상호작용 방법	16명 / 10%
	⑧ 기타 ()	2명 / 1%

- 그러나 가족생활 관련 프로그램에 참여할 의사가 없다고 한 응답자(13명, 19%, <표18-2>참조)에게 그 이유를 질문한 결과(<표18-7> 참조), '참여하고 싶은 프로그램이 없어서'(13명, 20%), '프로그램 장소가 멀어서'(9명, 14%), '프로그램 정보를 몰라서'(9명, 14%) 순으로 나타나, 프로그램 기획 시 다문화가족의 욕구에 맞는 프로그램 개발과 적극적인 홍보가 좀 더 다양하게 이루어질 필요성이 있음을 알 수 있음.

<표 18-7> 가족생활 관련 프로그램 불참 이유

(N=64/102)

문항	항목	결혼이민자/ N (%)
가족 프로그램에 참여하지 않는 이유는 무엇입니까?	① 하고 싶은 프로그램이 없어서	13명 / 20%
	② 이미 부부·부모역할을 잘 하고 있어서	5명 / 8%
	③ 프로그램 장소가 멀어서	9명 / 14%
	④ 돌봐야 하는 가족 구성원자녀 등이 있어서	7명 / 11%
	⑤ 언어적 어려움으로 이해하기 어려워서	3명 / 5%
	⑥ 가족이 함께하고 싶지 않아서	3명 / 5%
	⑦ 프로그램 정보를 몰라서	9명 / 14%
	⑧ 기타()	15명 / 23%

5. 경제생활 적응 및 관련 욕구

1) 경제활동 실태

- 경제활동(일)을 한 경험이 있는지 조사한 결과(<표19-1> 참조), 74%(59명)이 '있다'고 응답하였음. 이들 중 60%(48명)는 경제활동에 대한 만족도가 높은 것으로 나타남(<표19-2> 참조). '만족하다'고 한 대상자에게 그 이유를 질문한 결과(<표19-3> 참조), '근무시간, 장소 등 근무조건이 좋아서'(30명, 38%), '급여 등 경제적 보상이 마음에 들어서'(24명, 30%) 순으로 나타남. 그러나 '만족하지 않다'고 한 대상자에게 그 이유를 질문한 결과(<표19-4> 참조), 똑같이 '근무시간, 장소 등 근무조건'과 '급여 등 경제적 보상'이 마음에 들지 않기 때문이라고 함.
- 경제활동(일)을 한 경험이 '없다'(21명, 26%, <표19-1> 참조)한 응답자에게 그 이유를 질문한 결과(<표19-5> 참조), '적합한 일자리를 찾지 못해서'(4명, 40%), '가사, 육아 등으로 일할 상황이 아니라서'(3명, 30%) 순으로 나타남.

<표 19-1> 경제활동 경험 유무

(N=80/102)

문항	항목	결혼이민자/ N (%)
귀하는 경제활동(일)을 한 경험이 있습니까?	① 있다	59명 / 74%
	② 없다	21명 / 26%

<표 19-2> (경제활동 경험이 있는 경우) 만족도 여부

(N=80/102)

문항	항목	결혼이민자/ N (%)
(경제활동 경험이 '있다' 응답자만) 경제활동에 대해 어느 정도 만족하나요?	① 매우 만족	9명 / 11%
	② 대체로 만족	39명 / 49%
	③ 대체로 불만족	9명 / 11%
	④ 매우 불만족	2명 / 3%

<표 19-3> (경제활동에서 만족하다고 한 경우) 이유

(N=80/102)

문항	항목	결혼이민자/ N (%)
(경제활동 경험이 '만족하다' '응답자만) 그 이유는 무엇인가요? (복수선택 가능)	① 근무 시간, 장소 등 근무 조건	30명 / 38%
	② 급여 등 경제적 보상	24명 / 30%
	③ 직장 내 동료들과의 지지 관계	14명 / 18%
	④ 일에서 느끼는 보람과 성취감	12명 / 15%
	⑤ 사회 속에서 보람을 느껴서	7명 / 9%
	⑥ 기타 ()	1명 / 1%

<표 19-4> (경제활동에 대해 만족하지 않다고 한 경우) 이유

(N=80/102)

문항	항목	결혼이민자/ N (%)
(경제활동 경험이 '만족하지 않다' 응답자만) 그 이유는 무엇인가요? (복수선택 가능)	① 근무 시간, 장소 등 근무 조건	20명 / 25%
	② 급여 등 경제적 보상	15명 / 19%
	③ 사람들과의 관계 갈등으로 힘들어 서	2명 / 3%
	④ 보람과 성취감을 못 느낌	6명 / 8%
	⑤ 기타 ()	8명 / 10%

<표 19-5> (경제활동 경험이 없다면 경우) 그 이유

(N=10/102)

문항	항목	결혼이민자/ N (%)
(경제활동 경험이 '없 다' 응답자만) 그 이유는 무엇인가 요?	① 취업하고자 하나 적합한 일자리를 찾지 못함	4명 / 40%
	② 학교 학원 등 취업을 위한 공부를 하고 있음	1명 / 10%
	③ 가사, 육아 등으로 일할 상황이 아님	3명 / 30%
	④ 남편 혹은 가족이 취업을 원치 않음	1명 / 10%
	⑤ 현재 생활에 만족하여 일할 필요성을 느끼 지 않음	1명 / 10%
	⑥ 기타 ()	-

2) 향후 경제활동을 위한 프로그램 욕구

○ 향후 어떤 형태의 경제활동을 선호하는지 조사한 결과(<표19-6> 참조), '시간제

근로'(38명, 48%), '전일제 근로'(22명, 28%) 순으로 나타남.

- 향후 취업을 위해 무엇을 필요로 하는지를 조사한 결과(<표19-7>참조), '일자리 정보 제공 및 취업 알선'(46명, 26%), '취업을 위한 한국어교육'(25명, 14%), '직업 능력 향상을 위한 실무교육'(22명, 12%) 순으로 나타남.
- 그렇다면 향후 어떤 취업 관련 프로그램을 요구하는지에 대한 조사결과(<표 19-8> 참조), '제과제빵, 바리스타, 한식조리 등 음식 조리 관련 프로그램'(33명, 19%)에 대한 선호도가 가장 높은 것으로 나타났으며, 그 뒤로 '통·번역사'(26명, 15%) 순으로 나타남.

<표 19-6> 선호하는 경제활동 형태

(N=80/102)

문 항	항 목	결혼이민자/ N (%)
귀하가 선호하는 경제활동 형태는 무엇입니까?	① 전일제 근로	22명 / 28%
	② 시간제 근로	38명 / 48%
	③ 재택·유연근로	10명 / 13%
	④ 창업·자영업	8명 / 10%
	⑤ 기타()	2명 / 3%

<표 19-7> 취업(이직)을 위해 가장 필요한 도움 여부

(N=80/102)

문 항	항 목	결혼이민자/ N (%)
취업(이직)을 위해 가장 필요한 도움은 무엇인가요?	① 일자리 정보 제공 및 취업 알선	46명 / 26%
	② 취업 준비를 위한 1:1 상담	15명 / 8%
	③ 취업을 위한 한국어 교육	25명 / 14%
	④ 기초 컴퓨터 교육	18명 / 10%
	⑤ 직업능력 향상을 위한 실무교육(요리, 미용, 돌봄 등)	22명 / 12%
	⑥ 창업 교육	16명 / 9%
	⑦ 이력서/자기소개서/면접 등 구직스킬 업 교육	18명 / 1%

	⑧ 직장 예절 교육	5명 / 3%
	⑨ 가사 및 육아 분담 지원	14명 / 8%
	⑩기타()	1명 / 1%

<표 19-8> 직업 관련 프로그램 욕구

(N=80/102)

문항	항목	결혼이민자/ N (%)
관심 있는 전문 직업교육은 무엇인가요? (복수선택 가능)	① (의료·사법 등) 통·번역사	26명 / 15%
	② 다문화 강사 및 이중언어 강사	17명 / 10%
	③ 제과제빵, 바리스타, 한식조리 등 음식 조리 관련	33명 / 19%
	④ 영양보호사 등 간병·간호 관련	13명 / 8%
	⑤ 헤어·네일·피부 등 미용 관련	16명 / 9%
	⑥ 컴퓨터·IT 관련	14명 / 8%
	⑦ 교육·보육 관련	19명 / 11%
	⑧ 호텔 룸메이드·정리수납 등 정리 청소 분야	11명 / 6%
	⑨ 창업(온라인 창업 포함) 관련	18명 / 11%
	⑩ 재봉사 (미싱)	3명 / 2%
	⑪ 기타 ()	-

6. 차별경험

- 다문화가족으로 한국생활 중 차별을 경험한 적이 있는지를 조사한 결과(<표 20-1> 참조), 과반수 이상(48명, 60%)이 '없다'고 응답하였음. 그러나 40%(32명)는 '있다'고 응답하여, 어느 장소에서 차별을 경험하였는지 조사한 결과(<표 20-2> 참조), '거리나 동네'(10명, 31%), '직장/일터'(8명, 25%), '집(가족관계, 친척 등)'(6명, 19%) 순으로 나타나, 일상생활에서 차별을 경험하고 있음을 알 수 있음.
- 향후 다문화가족에 대한 인식개선이 필요하다고 여기는지에 대한 조사결과(<표 20-3> 참조), 과반수 이상(51명, 64%)이 '필요하다'고 응답하였음.

<표 20-1> 차별 경험 유무

(N=80/102)

문항	항목	결혼이민자/ N (%)
귀하는 다문화가족(외국인가족) 으로 한국생활 중 차별을 경험한 적이 있습니까?	① 있다(6-1-1로 이동)	32명 / 40%
	② 없다(6-2로 이동)	48명 / 60%

<표 20-2> (차별 경험이 있는 경우) 경험 장소

(N=32/102)

문항	항목	결혼이민자/ N (%)
(차별 경험이 '있다' 응답자 만) 어느 장소에서 차별을 받았나요?	① 거리나 동네	10명 / 31%
	② 집(가족관계, 친척 등)	6명 / 19%
	③ 직장/일터	8명 / 25%
	④ 상점, 음식점, 은행 등	1명 / 3%
	⑤ 공공기관(주민센터, 경찰서 등)	2명 / 6%
	⑥ 자녀의 학교나 학원 등	3명 / 9%
	⑦ 기타 ()	2명 / 6%

<표 20-3> 다문화가족인식 개선의 필요성

(N=80/102)

문항	항목	결혼이민자/ N (%)
사회적으로 '다문화가족(외국인가족)'에 대한 인식 개선이 필요하다고 생각합니까?	① 전혀 필요하지 않다.	4명 / 5%
	② 별로 필요하지 않다.	6명 / 8%
	③ 보통이다.	19명 / 24%
	④ 조금 필요하다.	18명 / 23%
	⑤ 매우 필요하다.	33명 / 41%

Ⅲ. 다문화가족 내 배우자의 가족생활 적응 및 관련 욕구 조사 결과

1. 일반적 배경

- 조사대상자의 배우자인 결혼이민자 한국에 어느 정도 거주했는지에 대한 조사결과(<표21> 참조), '10년 이상'(26명, 48%), '5~10년'(19명, 19%) 순으로 나타남.
- 조사대상자의 배우자인 결혼이민자가 소지하고 있는 비자(VISA) 형태 조사결과(<표22>참조), 과반수 이상(30명, 68%)이 '결혼이민자(F-6)'를 소지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남.
- 조사대상자의 배우자인 결혼이민자의 국적 취득 여부 결과(<표23> 참조), 과반수 이상(36명, 60%)이 '취득하지 않았다'고 함.

<표 21> 배우자(결혼이민자)의 한국 거주기간 여부

(N=54/66)

문항	항목	배우자/ N (%)
배우자(결혼이주여성)의 한국 거주기간은 어느 정도되십니까?	① 1~3년	6명 / 11%
	② 4~5년	3명 / 6%
	③ 5~10년	19명 / 35%
	④ 10년 이상	26명 / 48%
	⑤ 기타()	-

<표 22> 결혼이민자가 소지하고 있는 비자(VISA) 형태

(N=44/66)

문항	항목	배우자/ N (%)
귀하의 배우자(결혼이주여성)이 소지하고 있는 비자(VISA)는 무엇입니까?	① 방문동거(F-1)	1명 / 2%
	② 거주(F-2)	1명 / 2%
	③ 동반(F-3)	2명 / 5%
	④ 재외동포(F-4)	3명 / 7%
	⑤ 영주(F-5)	5명 / 11%
	⑥ 결혼이민자(F-6)	30명 / 68%
	⑦ 단기방문(C-3)	1명 / 2%

	⑧ 유학(D-2)		1명 / 2%
	⑨ 기타(G-1)	-	-
	⑩기타()	11명 / 14%	-

<표 23> 결혼이민자의 한국 국적 취득 여부

(N=60/66)

문 항	항 목	배우자/ N (%)
귀하의 배우자는 현재 한국 국적을 취득하였습니까?	① 예	24명 / 40%
	② 아니오	36명 / 60%
	③ 모르겠음	-

2. 가족에 대한 일반적 실태

- 현재 혼인 상태를 조사한 결과(<표24-1>, <표24-2> 참조), 90%(54명)가 '기혼(배우자 있음)'으로 응답하였으며, 이들의 대다수가 86%(49명)가 '초혼'이라고 응답함.
- 배우자와의 나이 차이 조사결과(<표24-3> 참조), '0~4세', '15~19세'(각 15명, 26%)가 가장 많은 것으로 나타났으며, 연령 차이 역시 획일적이지 않고 다양함을 알 수 있음.
- 자녀수에 대한 조사결과(<표24-4> 참조), '2명'(24명, 38%), '1명'(16명, 25%), '없다'(11명, 17%) 순으로 나타남.

<표 24-1> 배우자의 혼인 상태

(N=60/66)

문 항	항 목	배우자/ N (%)
귀하의 혼인 상태는 무엇입니까?	① 미혼 및 동거(3으로 이동)	5명 / 8%
	② 기혼(배우자 있음)(2-2로 이동)	54명 / 90%
	③ 별거(2-2로 이동)	-
	④ 이혼(2-4으로 이동)	1명 / 2%

	⑤ 사별(2-4으로 이동)	-
--	----------------	---

<표 24-2> (배우자가 있는 경우) 혼인 형태

(N=57/66)

문항	항목	배우자/ N (%)
귀하의 혼인형태는 무엇입니까?	① 초혼	49명 / 86%
	② 재혼	8명 / 14%

<표 24-3> (배우자가 있는 경우) 배우자와의 나이 차이

(N=58/66)

문항	항목	배우자/ N (%)
배우자와의 나이는 얼마나 차이가 납니까? (배우자 나이-결혼이민자 나이)	① 0~4세	15명 / 26%
	② 5~9세	11명 / 19%
	③ 10~14세	12명 / 21%
	④ 15~19세	15명 / 26%
	⑤ 20세 이상	5명 / 9%
	⑥ 기타(세)	-

<표 24-4> 자녀수 여부

(N=64/66)

문항	항목	배우자/ N (%)
귀하의 자녀는 몇 명 있습니까?	① 없음	11명 / 17%
	② 1명	16명 / 25%
	③ 2명	24명 / 38%
	④ 3명	9명 / 14%
	⑤ 4명	2명 / 3%
	⑥ 기타()	2명 / 3%

3. 가족생활 적응 및 관련 욕구

1) 배우자(가족)와의 관계에 대한 주관적 인식

- 배우자(가족)와의 관계에 대해 어떻게 인식하고 있는지 조사한 결과(<표25>참조), 조사대상자의 과반수 이상이 배우자와 '친밀하게 느낀다', '신뢰한다', '대화가 잘된다', '의견 차이가 갈등이 생겨도 잘 해결한다', '함께 시간을 보내는 편이

다, '내가 힘들 때 나에게 힘이 된다'고 인식하는 것으로 나타남.

- 그러나 결혼이민자와 마찬가지로 조사대상자인 배우자의 약 46%가 '부모, 처가와의 관계를 유지하거나 갈등을 해결하는 것이 어렵다', '자녀양육과 교육문제를 조율하는 것이 어렵다', 문항에서 어렵다고 응답하여, 향후 부모, 자녀양육 및 돌봄 관련 이슈에 대한 도움이 필요함을 알 수 있음.
- 또한 조사대상자의 10~20% 정도는 배우자(가족)와의 관계에서 부정적 인식을 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나, 이들 부부에 대한 적극적 도움이 있어야 함을 알 수 있음.

<표 25> 배우자(가족)의 관계에 대한 주관적 인식

(N=59/66)

문 항	항 목	배우자/ N (%)
1) 친밀하다고 느낀다.	전혀 아니다	-
	아니다	7명 / 12%
	그렇다	29명 / 49%
	매우 그렇다	23명 / 39%
2) 신뢰한다.	전혀 아니다	1명 / 2%
	아니다	4명 / 7%
	그렇다	29명 / 49%
	매우 그렇다	26명 / 44%
3) 대화가 잘 된다.	전혀 아니다	2명 / 3%
	아니다	11명 / 19%
	그렇다	27명 / 46%
	매우 그렇다	20명 / 34%
4) 의견차이나 갈등이 생겨도 잘 해결한다.	전혀 아니다	-
	아니다	9명 / 15%
	그렇다	34명 / 58%
	매우 그렇다	17명 / 29%
5) 부모-처가와 의 관계를 유지하거나 갈등을 해결하는 것이 어렵다.	전혀 아니다	8명 / 14%
	아니다	24명 / 41%
	그렇다	23명 / 39%
	매우 그렇다	4명 / 7%
6) 자녀 양육과 교육 문제를 조율하는 것이 어렵	전혀 아니다	10명 / 17%

다.	아니다	20명 / 34%
	그렇다	20명 / 34%
	매우 그렇다	7명 / 12%
7) 가사·돌봄 부담을 나누기 어렵다.	전혀 아니다	9명 / 15%
	아니다	23명 / 39%
	그렇다	18명 / 31%
	매우 그렇다	6명 / 10%
8) 함께 시간을 보내는 편이다.	전혀 아니다	3명 / 5%
	아니다	6명 / 10%
	그렇다	33명 / 56%
	매우 그렇다	18명 / 31%
9) 내가 힘들 때 나에게 힘이 된다.	전혀 아니다	1명 / 2%
	아니다	4명 / 7%
	그렇다	28명 / 47%
	매우 그렇다	26명 / 44%

2) 가족생활 역할분담 실태

- 가족생활 역할분담을 어떻게 하고 있는지 조사한 결과(<표26> 참조), 과반수 이상이 '가사분담', '자녀양육', '자녀교육', '가족 내 의사결정' 모두 '부부가 함께 한다'고 응답하였음.
- 그러나 조사대상자의 15~30% 미만은 '가사분담', '자녀양육', '자녀교육'을 결혼이 주여성인 배우자 혼자 부담하고 있다고 응답하여, 배우자의 역할과중 또는 스트레스를 예측할 수 있음.
- 동일질문에 대한 결혼이민자의 응답과 달리 배우자는 '그 외 가족(친정, 시댁 부모, 친척 등)'의 분담 여부에 대해 낮게 인식하는 것으로 나타남.

<표 26> 가족 내 역할분담 실태

(N=56/66)

문 항	항 목	배우자/ N (%)
1) 가사분담	본인만	2명 / 4%
	배우자만	16명 / 29%
	부부 같이	34명 / 61%
	그 외 가족	4명 / 7%

	(친정·시댁부모, 친척 등)	
2) 자녀양육(일상 돌봄, 놀이, 생활습관 지도 등)	본인만	4명 / 7%
	배우자만	9명 / 16%
	부부 같이	40명 / 71%
	그 외 가족 (친정·시댁부모, 친척 등)	2명 / 4%
3) 자녀교육 (학교, 학원, 숙제, 진로 등)	본인만	5명 / 9%
	배우자만	13명 / 23%
	부부 같이	35명 / 63%
	그 외 가족 (친정·시댁부모, 친척 등)	2명 / 4%
4) 가족 내 의사결정	본인만	2명 / 4%
	배우자만	5명 / 9%
	부부 같이	48명 / 86%
	그 외 가족 (친정·시댁부모, 친척 등)	1명 / 2%

3) 가족생활 내 어려운 점

- 현재 부부관계에서 가장 어려운 점이 무엇이 조사한 결과(<표27-1> 참조), '의견 및 문화·가치관 차이로 인한 갈등'(18명, 24%), '경제적 문제'(15명, 24%), '자녀양육문제'(14명, 19%) 순으로 나타남. 이는 동일한 질문에 대한 결혼이민자의 응답과 같은 것으로 나타남. 다문화가족 내 남편(배우자)을 대상으로 한 '문화 또는 가치관 차이'를 어떻게 이해하고, 적용하여야 하는가에 대한 적극적 지원이 이루어질 필요가 있음.

<표 27-1> 부부관계 어려움

(N=64/66)

문항	항목	배우자/ N (%)
부부관계에서 현재 가장 어려운 점은 무엇입니까? (복수선택 가능)	① 의사소통의 어려움	12명 / 16%
	② 의견 및 문화·가치관 차이로 인한 갈등	18명 / 24%
	③ 경제적 문제	15명 / 20%
	④ 자녀 양육 문제	14명 / 19%
	⑤ 가사·돌봄 분담문제	3명 / 4%
	⑥ 가족·처가와의 관계 조율	8명 / 11%
	⑦ 기타()	5명 / 7%

- 현재 부모역할을 수행함에 있어 가장 어려운 점이 무엇인지 조사한 결과(<표 27-2>참조), '자녀와의 대화방법(14명, 18%)' '자녀의 게임, 스마트폰, 인터넷 사용'(14명, 14%), '배우자나 다른 가족과의 의견차이'(10명, 13%) 순으로 가장 어렵다고 응답함. 따라서 결혼이민자와 마찬가지로 배우자를 대상으로 한 아버지교육이 좀 더 적극적으로 이루어질 필요가 있으며, 특히 '배우자나 다른 가족과의 의견차이'를 조율, 소통할 수 있는 부모역할 의사소통 기술 훈련이 제공될 필요가 있음.

<표 27-2> 부모역할 어려움

(N=64/66)

문항	항목	배우자/ N (%)
부모 역할에 대하여 어떤 어려움이나 고민이 있습니까? (복수선택 가능)	① 어려움 없음	10명 / 13%
	② 자녀와 대화 방법	14명 / 18%
	③ 배우자이나 다른 가족과의 의견 차이	10명 / 13%
	④ 자녀와의 놀이 활동	9명 / 12%
	⑤ 배우자가 자녀교육에 잘 참여하지 않음	5명 / 7%
	⑥ 한국 유치원/어린이집, 학교에 대해 잘 모름	3명 / 4%
	⑦ 자녀에게 한글을 직접 가르치기 어려움	8명 / 11%
	⑧ 결혼이민자나라의 언어와 문화 가르치기	6명 / 8%
	⑨ 자녀의 게임, 스마트폰, 인터넷 사용	11명 / 14%
	⑩ 기타()	-

- 가족과 함께 하는 여가생활의 어려움이 무엇인지 조사한 결과(<표27-3> 참조), 동일질문에 대한 결혼이주여성의 응답과 동일한 것으로 나타남. 즉 '어려움이 없다'(25명, 41%)가 가장 많은 수를 차지하였으나, 그 뒤로 '시간 및 돌봄 여건이 어려워져'(17명, 28%), '비용이 들어서'(12명, 20%)를 꼽아 경제적 어려움을 경험하는 다문화가족의 여가생활 부족으로 인한 가족기능 약화를 예측해 볼 수 있음.

<표 27-3> 가족과의 여가

(N=64/66)

문항	항목	배우자/ N (%)
가족과 함께 여가를 할 때 가장 큰 어려움은 무엇입니까? (복수선택 가능)	① 어려움 없음	25명 / 41%
	② 시간 및 돌봄 여건이 어려워서	17명 / 28%
	③ 가족이 함께하려면 비용이 들어서	12명 / 20%
	④ 가족이 함께할 만한 여가활동이 없어서	4명 / 7%
	⑤ 가족이 함께하고 싶지 않아서	1명 / 2%
	⑥ 기타 ()	2명 / 3%

4) 향후 예측되는 어려움에 대한 주관적 인식

- 앞으로 생활해 나가면서 어려울 것이라 예측되는 것이 무엇인지 조사한 결과 (<표28참조), '경제적 준비, 연금, 저축 등 부족'(30명, 37%)을 가장 많이 꼽았고, 그 뒤로 '언어문화 장벽으로 인한 정보부족'(13명, 16%), '가족부양 관계 문제'(12명, 15%) 순으로 나타났음.

<표 28> 미래에 대한 두려움 인식 여부

(N=64/66)

문항	항목	배우자/ N (%)
앞으로의 한국생활에 있어서 미래를 준비를 하는 데 가장 큰 어려움은 무엇입니까? (복수선택 가능)	① 어려움 없음	-
	② 경제적 준비 연금 저축 등 부족	30명 / 37%
	③ 건강관리 어려움	9명 / 11%
	④ 언어문화 장벽으로 인한 정보 부족	13명 / 16%
	⑤ 가족 부양 관계 문제	12명 / 15%
	⑥ 사회적 지원 부족	11명 / 13%
	⑦ 주거 환경 문제	6명 / 7%
	⑧ 기타()	1명 / 1%

5) 가족생활 관련 프로그램 욕구

○ 가족생활 관련 프로그램의 필요성 여부에 대한 조사 결과(<표29-1> 참조), 조사 대상자의 70% 이상이 '부부 및 가족관계 교육(47명, 78%)', '생애주기별 부모교육(51명, 85%)', '부부 및 부모-자녀상담(42명, 55%)', '배우자의 퇴직 등 노후준비 교육(42명, 85%)', '가족문화체험(51명, 85%)', '가정 내 이중언어환경조성(45명, 75%)' 관련 프로그램이 필요하다고 응답함. 이 중 '생애주기별 부모교육', '퇴직 등 노후준비교육'에 대한 욕구가 높은 것으로 나타남.

<표 29-1> 가족생활 관련 프로그램의 필요성 여부

		(N=60/66)
문 항	항 목	배우자/ N (%)
1) 부부 및 가족관계 교육(소통, 역할, 갈등해결 등)이 필요하다.	전혀 아니다	5명 / 8%
	아니다	8명 / 13%
	그렇다	32명 / 53%
	매우 그렇다	15명 / 25%
2) 자녀 연령에 맞춘 부모교육이 필요하다.	전혀 아니다	3명 / 5%
	아니다	6명 / 10%
	그렇다	34명 / 57%
	매우 그렇다	17명 / 28%
3) 배우자 및 자녀와 관련된 상담이 필요하다.	전혀 아니다	6명 / 10%
	아니다	10명 / 17%
	그렇다	32명 / 53%
	매우 그렇다	12명 / 20%
4) 배우자의 퇴직 등(노후) 준비와 관련된 프로그램이 필요하다.	전혀 아니다	3명 / 5%
	아니다	6명 / 10%
	그렇다	36명 / 60%
	매우 그렇다	15명 / 25%
5) 가족 모두가 참여하는 문화·체험활동이 필요하다.	전혀 아니다	2명 / 3%
	아니다	7명 / 12%
	그렇다	36명 / 60%
	매우 그렇다	15명 / 25%
6) 가정 내 이중언어 환경조성이 필요하다.	전혀 아니다	5명 / 8%
	아니다	10명 / 17%
	그렇다	27명 / 45%
	매우 그렇다	18명 / 30%

○ 가족생활 관련 프로그램이 있다면 참여할 의사가 있는지를 질문한 결과(<표 29-2> 참조), 79%(46명)가 참여할 의사가 있다고 응답하였음. 그 이유를 질문한 결과(<표29-3> 참조), '자녀양육, 교육능력을 향상시키기 위해서'(12명, 30%), '가족, 부부관계 개선을 위해서'(10명, 25%), '가족과 함께 시간을 보내기 위해'(9명, 23%) 순으로 나타남. 또한 만약 가족 관련 프로그램이 있다면 어떤 방식을 선호하는지에 대한 질문 결과(<표29-4>참조), '다른 가족들과 함께' 또는 '1:1 자신들의 가족에 맞는 맞춤형' 모두 동일하게 선호하는 것으로 나타남. 또한 가족관계(부부, 부모관계)에 대한 전문가 개입 여부에 대한 선호도는 과반수 이상(29명, 56%)이 '개입을 원한다'고 함(<표29-5> 참조). 마지막으로 가족여가 프로그램 형태에 따른 선호도 조사결과(<표29-6> 참조), '나들이, 체험 활동'(각각 27명, 25%)이 가장 많은 수를 차지하였고, 그 뒤로 '영화, 연극 등 관람'(16명, 15%) 순으로 나타남.

<표 29-2> 가족생활 관련 프로그램 참여 의사

(N=58/66)

문항	항목	배우자/ N (%)
가족 프로그램에 참여한다면 어떤 방식을 선호하십니까?	① 다른 가족과 함께	27명 / 50%
	② 우리가족 1:1 맞춤형	27명 / 50%

<표 29-3> 가족생활 관련 프로그램 참여 이유

(N=40/66)

문항	항목	배우자/ N (%)
가족 프로그램에 참여하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① 가족·부부관계 개선을 위해	10명 / 25%
	② 자녀 양육·교육 능력 향상을 위해	12명 / 30%
	③ 가족과 함께 시간을 보내기 위해	9명 / 23%
	④ 친구·이웃을 확대하기 위해	2명 / 5%
	⑤ 집과 가까워서	2명 / 5%
	⑥ 비용부담(무료)이 적어서	2명 / 5%
	⑦ 기타()	3명 / 8%

<표 29-4> 가족생활 관련 프로그램 참여 형태에 대한 선호도

(N=54/66)

문항	항목	배우자/ N (%)
가족 프로그램에 참여한다면 어떤 방식을 선호하십니까?	① 다른 가족과 함께	27명 / 50%
	② 우리가족 1:1 맞춤형	27명 / 50%

<표 29-5> 가족관계에 대한 전문가 개입여부 선호도

(N=52/66)

문항	항목	배우자/ N (%)
가족관계(부부부모관계)에서 전문가 도움이 필요 하다고 생각하십니까?	① 예	29명 / 56%
	② 아니오	23명 / 44%

<표 29-6> 가족이 함께 하는 여가활동 선호도

(N=64/66)

문항	항목	배우자/ N (%)
가족이 함께 하는 여가활동으로 어떤 것을 원하십니까? (복수선택 가능)	① 나들이	27명 / 25%
	② 체험 활동	27명 / 25%
	③ 요리 체험	14명 / 13%
	④ 박물관 탐방	10명 / 9%
	⑤ 보드게임 놀이	5명 / 5%
	⑥ 영화·연극 등 관람	16명 / 15%
	⑦ 놀이로 배우는 상호작용 방법	9명 / 8%
	⑧ 기타 ()	-

- 그러나 가족생활 관련 프로그램에 참여할 의사가 없다고 한 응답자(12명, 21%, <표29-2>참조)에게 그 이유를 질문한 결과(<표29-7> 참조), '프로그램 정보를 몰라서'(12명, 24%) '참여하고 싶은 프로그램이 없어서'(9명, 18%) 순으로 나타나 다문화가족 사업에 대한 좀 더 적극적인 홍보방안과 배우자(남편)가 적극적으로 참여할 수 있는 다양한 주제의 프로그램 역시 개발될 필요함을 알 수 있음.

<표 29-7> 가족생활 관련 프로그램 불참 이유

(N=51/66)

문항	항목	배우자/ N (%)
가족 프로그램에 참여하지 않는 이유는 무엇입니까?	① 하고 싶은 프로그램이 없어서	9명 / 18%
	② 이미 부부·부모역할을 잘 하고 있어서	6명 / 12%
	③ 프로그램 장소가 멀어서	6명 / 12%
	④ 돌봐야 하는 가족 구성원자녀 등이 있어서	6명 / 12%
	⑤ 언어적 어려움으로 이해하기 어려워서	5명 / 10%
	⑥ 가족이 함께하고 싶지 않아서	2명 / 4%
	⑦ 프로그램 정보를 몰라서	12명 / 24%
	⑧ 기타()	5명 / 10%

4. 경제생활 적응 및 관련 욕구

1) 경제활동 실태

- 경제활동(일)을 한 경험이 있는지 조사한 결과(<표30-1> 참조), 90%(54명)이 '있다'고 응답하였음. 일을 하고 있는 경우 어떤 형태의 일을 하고 있는지 조사한 결과(<표30-2> 참조), '전일제'(24명, 47%), '시간제'(14명, 27%) 순으로 나타남. 또한 근무요일 형태를 조사한 결과(<표30-3> 참조), '토요일'(12명, 19%), '일요일'(6명, 9%), '비정기적'(10명, 16%) 또한 응답을 한 것으로 나타나 이들이 프로그램에 참여하도록 하기 위해서는 전략적 접근이 필요함을 알 수 있음. 그럼에도 불구하고 87%(48명)는 경제활동에 대한 만족도가 높은 것으로 나타남 (<표30-4> 참조).

<표 30-1> 경제활동 경험 유무

(N=60/66)

문항	항목	배우자/ N (%)
귀하는 경제활동(일)을 한 경험이 있습니까?	① 있다	54명 / 90%
	② 없다	6명 / 10%

<표 30-2> (경제활동을 한 경험이 있다고 한 경우) 경제활동 형태

(N=51/66)

문항	항목	배우자/ N (%)
<i>(경제활동을 한 경험이 있다고 한 응답자만)</i> 경제활동 형태는 무엇입니까?	① 전일제 근로	24명 / 47%
	② 시간제 근로	14명 / 27%
	③ 재택·유연근로	2명 / 4%
	④ 창업·자영업	10명 / 20%
	⑤ 기타()	1명 / 2%

<표 30-3> (경제활동을 한 경험이 있다고 한 경우) 경제활동 요일

(N=64/66)

문항	항목	배우자/ N (%)
<i>(경제활동을 한 경험이 있다고 한 응답자만)</i> 경제활동은 언제 하고 있습니까? <i>(복수선택 가능)</i>	① 평일(월-금)	36명 / 56%
	② 토요일	12명 / 19%
	③ 일요일	6명 / 9%
	④ 비정기적	10명 / 16%

<표 30-4> (경제활동을 한 경험이 있다고 한 경우) 경제활동 만족도

(N=55/66)

문항	항목	배우자/ N (%)
<i>(경제활동을 한 경험이 있다고 한 응답자만)</i> 자신의 경제활동에 대해 만족하십니까? <i>(복수선택 가능)</i>	① 매우 만족	4명 / 7%
	② 대체로 만족	44명 / 80%
	③ 대체로 불만족	7명 / 13%
	④ 매우 불만족	-

2) 배우자(결혼이민자)에 대한 경제적 활동 요구 여부

- 배우자(결혼이민자)가 경제활동을 해야 한다고 생각하는지 조사한 결과(표 <31-1>참조), 85%(50명)이 '그렇다'고 응답하였음. '그렇다'고 응답한 경우 그 이유가 무엇인지 조사한 결과(<표31-2> 참조), 44%(23명)가 '가정의 생활비를 보탬 수 있어서'를 꼽았음.
- 반대로 배우자(결혼이민자)가 경제활동을 하지 않았으면 하는 이유를 조사한 결과(<표31-2> 참조), 32%(8명)은 '가사, 육아, 자녀교육 등 집안일이 많아서'를 꼽았음.

<표 31-1> 배우자(결혼이주여성)의 경제활동 요구 여부

(N=59/66)

문항	항목	배우자/ N (%)
결혼이민자가 경제활동을 해야 한다고 생각하십니까?	① 예	50명 / 85%
	② 아니오	9명 / 15%

<표 31-2> (배우자(결혼이민자)가 경제활동을 해야 한다고 생각하는 경우) 그 이유

(N=52/66)

문항	항목	배우자/ N (%)
결혼이민자가 경제활동을 해야 하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① 가정의 생활비를 보탬 수 있어서	23명 / 44%
	② 수입이 불안정하거나 부족해서	3명 / 6%
	③ 이민자로서 한국사회에 안정적으로 정착하기 위해서	7명 / 13%
	④ 자기개발이나 경력유지를 위해서	5명 / 10%
	⑤ 자녀교육 및 양육비용을 감당하기 위해서	4명 / 8%
	⑥ 사회적 고립을 피하고 외부활동을 유지하기 위해서	4명 / 8%
	⑦ 한국어·한국사회 적응을 위해서	2명 / 4%
	⑧ 배우자의 부담을 덜기 위해서	1명 / 2%

	⑨ 미래의 노후나 비상상황 대비를 위해서	3명 / 6%
	⑩ 다른 가족(부모, 친척 등)에게 경제적으로 도움을 주기 위해서	-
	⑪ 기타()	-

<표 31-3> (배우자(결혼이민자)가 경제활동을 하지 않아야 한다고 생각한 경우) 그 이유
(N=25/66)

문항	항목	배우자/ N (%)
취업(이직)을 위해 가장 필요한 도움은 무엇인가요?	① 가정 생활에 지장이 없기 때문에	4명 / 16%
	② 가사·육아·자녀교육 등 집안일이 많아서	8명 / 32%
	③ 한국사회 정착이나 언어·문화 적응이 아직 충분치 않아서	4명 / 16%
	④ 체력·건강·언어장벽 등의 이유로 외부일이 어렵다고 느껴서	1명 / 4%
	⑤ 경제활동보다는 돌봄 역할(부모, 친척 등)이 우선이라고 생각해서	4명 / 16%
	⑥ 이미 경제활동을 하고 있는 가구원(배우자, 가족)이 있어서	1명 / 4%
	⑦ 일을 하지 않아도 지원제도가 있어서	-
	⑧ 일을 안 해도 된다고 여겨서	1명 / 4%
	⑨ 기타()	2명 / 8%

4] 다문화가족(결혼이민자와 배우자)의 자녀 관련 욕구조사 결과

1. 자녀 이중언어환경 조성의 어려움

- 가정 내 자녀가 결혼이민자의 모국어 사용을 하고 있는지 조사한 결과(<표 32-1>참조), 결혼이민자의 70%(14명)은 '그렇다'고 하였으나, 배우자의 63%(10명)는 '아니오'라고 응답하였음. 그렇다면 자녀의 주 사용언어가 무엇인지 조사한 결과(<표32-2>참조), 결혼이민자의 73%(8명)는 '한국어와 모국어를 섞어서'

라고 응답하였으며, 배우자의 71%(6명)는 '한국어만 사용한다'라고 응답하였음.

- 그렇다면 가정 내 이중언어환경조성에 대한 어려움이나 고민은 무엇인지 조사한 결과(<표32-3>참조), 결혼이민자는 '두 언어를 섞어 써서 자녀가 헷갈려 하거나 말이 느린 것 같다'(12명, 24%), '두 언어를 다 가르쳐야 해서 부모가 부담을 느낀다'(11명, 22%), '자녀가 한국어를 잘 못해 학교생활이나 숙제가 어렵다'(8명, 16%) 순으로 나타남. 그러나 배우자의 과반수(7명, 50%)는 '어려움이 없다'고 응답하여 실제 이중언어환경조성에 대한 배우자의 노력이 잘 이루어지고 있지 않음을 엿볼 수 있음. 실제 각 가정 내에서 일상적인 모국어를 사용하고 있는 결혼이민자라 하더라도 이에 대한 어려움 해소가 이루어지지 않는다면 보다 적극적인 이중언어환경조성이 어려울 것이라 여기며, 특히 배우자의 적극적인 참여를 유도할 수 있는 방안이 필요함.

<표 32-1> 자녀의 결혼이민자 모국어 사용 여부

(결혼이민자 N=20/102, 배우자 N=16/66)

문항	항목	결혼이민자/ N (%)	배우자/ N (%)
귀하의 자녀가 결혼이민자의 모국어 사용을 하고 있나요?	① 예	14명 / 70%	6명 / 38%
	② 아니요	6명 / 30%	10명 / 63%

<표 32-2> 자녀의 주 사용언어

(결혼이민자 N=11/102, 배우자 N=11/66)

문항	항목	결혼이민자/ N (%)	배우자/ N (%)
귀하의 자녀가 주로 사용하는 언어는 무엇인가요?	① 한국어만	1명 / 9%	6명 / 71%
	② 부모 모국어만	1명 / 9%	-
	③ 한국어와 모국어를 섞어서	8명 / 73%	4명 / 21%
	④ 기타응답	1명 / 9%	1명 / 7%

<표 32-3> 이중언어환경조성에 대한 어려움

(결혼이민자 N=102, 배우자 N=66)

문항	항목	결혼이민자/ N	배우자/ N
이중언어 환경조성에 대하여 어떤 어려움이나 고민이 있습니까? (복수선택 가능)	① 어려움 없음	5명 / 10%	7명 / 50%
	② 두 언어를 섞어 써서 자녀가 헷갈려 하거나 말이 느린 것 같아요	12명 / 24%	3명 / 21%
	③ 자녀가 한국어를 잘 못해 학교생활이나 숙제 이해가 어렵습니다	8명 / 16%	-
	④ 자녀가 부모님의 모국어를 잘 못해 가족과 대화가 힘들어요	3명 / 6%	1명 / 7%
	⑤ 두 언어를 다 가르쳐야 해서 부모가 부담을 느낍니다	11명 / 22%	3명 / 21%
	⑥ 읽기나 쓰기를 어느 언어로 가르쳐야 할지 헷갈립니다	6명 / 12%	-
	⑦ 주변 가족이 이중언어 사용을 반대하거나 걱정합니다	4명 / 8%	-
	⑧ 기타()	1명 / 2%	-

2. 자녀양육의 어려움

- 부모로서 자녀양육(교육 포함)의 어려움이 무엇인지 조사한 결과(<표33>참조), 결혼이민자의 경우 '부모인 나의 한국어 실력 부족으로 학교·교사와 소통이 안안되어서'(15명, 19%)를 가장 많이 꼽았고, 그 뒤로 '자녀의 진로나 적성지도에 필요한 정보가 부족해서'(13명, 17%), '학교생활이나 학습지도를 어떻게 해야 할지 몰라서'(11명, 14%), '부모·자녀교육 프로그램에 참여할 시간이 부족해서'(9명, 12%)를 언급하였음. 이에 우선적으로 결혼이민자의 한국어 실력 향상에 대한 노력이 이루어져야 하나, 여러 가지 어려움으로 이에 대한 해소가 잘 되지 않는 결혼이민자가 자녀양육을 잘 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한 진로나 학습지도 등에 대한 정보 제공 및 실천을 도울 수 있는 양육코칭이 보다 적극적으로 이루어질 필요가 있음을 알 수 있음. 특히 이에 대한 것이 필요함에도 불구하고, 취업 등의 문제로 이에 대한 참여가 어려운 결혼이민자에게 필요한 정보를 온라인 또는 정보제공지 등의 전달 등 보다 다양한 방식의 접근이 이루어질 필요가 있음을

알 수 있음.

- 배우자의 경우, '학교생활이나 학습지도를 어떻게 해야 할지 몰라서'(3명, 25%), '배우자와 자녀양육 방식이 달라 갈등이 생겨서'(3명, 25%)를 우선적으로 꼽았음. 배우자의 적극적 자녀양육 참여 유도를 위한 다문화가족 내 아버지 대상 교육 등이 좀 더 활성화될 필요가 있으며, 특히 아내와의 자녀양육 방식을 조율할 수 있는 부부 단위의 양육코칭 또는 상담이 좀 더 적극적으로 이루어질 필요가 있음을 시사함.

<표 33> 자녀양육의 어려움

(결혼이민자 N=102, 배우자 N=66)

문항	항목	결혼이민자/ N	배우자/ N
부모로서 자녀 양육과 교육과정에서 겪는 어려움은 무엇입니까? (복수선택 가능)	① 자녀의 한국어(언어) 발달이 느려서	4명 / 5%	2명 / 17%
	② 학교생활이나 학습지도를 어떻게 해야 할지 몰라서	11명 / 14%	3명 / 25%
	③ 자녀의 진로나 적성지도에 필요한 정보가 부족해서	13명 / 17%	1명 / 8%
	④ 자녀가 친구관계에서 어려움을 겪을 때 어떻게 도와줘야 할지 모르겠어서	5명 / 6%	1명 / 8%
	⑤ 자녀가 정서적으로 불안하거나 자신감이 부족한 것 같아서	4명 / 5%	-
	⑥ 부모인 나의 한국어 실력 부족으로 학교교사와 소통이 잘 안 되서	15명 / 19%	1명 / 8%
	⑦ 부모·자녀교육 프로그램에 참여할 시간이 부족해서	9명 / 12%	1명 / 8%
	⑧ 배우자와 자녀양육방식이 달라 갈등이 생겨서	6명 / 8%	3명 / 25%
	⑨ 자녀가 두 문화(부모 모국과 한국 문화) 사이에서 혼란을 겪어서	5명 / 6%	-
	⑩ 경제적 부담(사교육비, 프로그램비 등)이 커서	5명 / 6%	-
	⑪ 양육을 함께 논의하거나 도와줄 사람이 없어서	1명 / 1%	-
	⑫ 센터나 지역에서 어떤 지원이 있는지 잘 몰라서	-	-
	⑬ 기타()	-	-

3. 일반적인 자녀 관련 프로그램 욕구

1) 가족센터 내 다문화가족자녀 관련 프로그램 인지 및 참여 욕구

- 가족센터 내 다문화가족자녀 관련 프로그램을 알고 있는지 조사한 결과는 <표 34>와 같음.
- 언어발달지원사업은 결혼이민자의 58%(7명)가 알고 있고, 이중 33%인 4명이 '참여하고 싶다'고 함. 배우자는 67%(8명)가 '알고 있다'고 하였으며, 이 중 2명은 참여한 경험이 있으며, 마찬가지로 2명(17%)은 이 프로그램에 '참여하고 싶다'고 응답하였음.
- 방문교육서비스는 결혼이민자의 42%(5명)이 '알고 있다'고 응답하였고, 58%(7명)가 '참여하고 싶다'고 함. 배우자의 경우 과반수 이상인 67%(8명)가 '알고 있다'고 하였으며, 이 중 3명(25%)이 '참여하고 싶다'고 함.
- 이중언어교실은 결혼이민자의 42%(5명)가 '알고 있다'고 응답하였으며, 이 중 4명(33%)이 '참여하고 싶다'고 함. 배우자의 경우 과반수 이상인 7명(58%)이 '알고 있다'고 하였으며, 이 중 4명(33%)이 '참여하고 싶다'고 함.
- 기초학습지원(한글, 수학 기초)는 결혼이민자의 42%(5명)가 '알고 있다'고 하였으며, 이 중 3명(25%)은 참여한 경험이 있고, 4명(33%)은 '참여하고 싶다'고 응답함. 배우자의 경우 58%(7명)가 '알고 있다'고 응답하였고, 이 중 1명(8%)은 참여한 경험이 있고, 4명(33%)은 '참여하고 싶다'고 함.
- 기초학습지원(사회, 과학 등 학습)은 결혼이민자의 42%(5명)가 '알고 있다'고 응답하였으며, 과반수 이상(7명, 58%)이 '참여하고 싶다'고 함. 배우자의 경우 7명(58%)이 '알고 있다'고 하였으며, 이 중 5명(42%)이 '참여하고 싶다'고 함.
- 진로설계지원(진로체험, 진학컨설팅 등)은 결혼이민자의 50%(6명)가 '알고 있다'

고 하였으며, 이들 모두 '참여하고 싶다'고 함. 배우자의 경우 67%(8명)이 '알고 있다'고 하였으며, 이 중 33%(4명)가 '참여하고 싶다'고 응답함.

- 개인상담(정서, 친구관계, 학습 등)은 결혼이민자의 58%(7명)가 '알고 있다'고 하였으며, 이 중 2명(17%)은 '참여한 경험이 있다'고 하였고, 3명(25%)은 '참여하고 싶다'고 응답함. 배우자의 경우 75%(9명)가 '알고 있다'고 하였으며, 이 중 3명(25%)은 '참여하고 싶다'고 응답함.
- 부모-자녀관계향상 프로그램은 결혼이민자의 42%(5명)가 '알고 있다'고 하였으며, 이 중 3명(25%)은 '참여한 경험이 있다'고 하였고, 4명(33%)은 '참여하고 싶다'고 함. 배우자의 경우 58%(7명)가 '알고 있다'고 하였으며, 이 중 2명은 참여한 경험이 있고, 3명(25%)은 '참여하고 싶다'고 함.
- 교육활동비 지원은 결혼이민자의 42%(5명)이 '알고 있다'고 하였으며, 58%(7명)가 '참여하고 싶다'고 하였음. 배우자의 경우 42%(5명)가 '알고 있다'고 하였으며, 2명(17%)은 참여한 경험이 있고, 5명(42%)은 '참여하고 싶다'고 응답함.

<표 34> 가족센터 내 다문화가족자녀 관련 프로그램 인지 및 참여 여부

(결혼이민자 N=12/102, 배우자 N=12/66)

문항	항목	결혼이민자/ N	배우자/ N	
가족센터에서 진행하고 있는 프로그램입니다. 알고 계신 것과 참여했던 프로그램을 모두 표시해주세요	언어발달지원사업 (언어평가, 언어교육 등)	알고있다	7명 / 58%	8명 / 67%
		참여했다	1명 / 8%	2명 / 17%
		참여하고 싶다	4명 / 33%	2명 / 17%
	방문교육서비스 (1:1 가정방문 학습지도)	알고있다	5명 / 42%	8명 / 67%
		참여했다	-	1명 / 8%
		참여하고 싶다	7명 / 58%	3명 / 25%
	이중언어교실	알고있다	5명 / 42%	7명 / 58%
		참여했다	3명 / 25%	1명 / 8%
		참여하고 싶다	4명 / 33%	4명 / 33%
	기초학습지원① (한글, 수학 기초)	알고있다	5명 / 42%	7명 / 58%
		참여했다	3명 / 25%	1명 / 8%
		참여하고 싶다	4명 / 33%	4명 / 33%

기초학습지원② (사회, 과학 등 과목학습)	알고있다	5명 / 42%	7명 / 58%
	참여했다	-	-
	참여하고 싶다	7명 / 58%	5명 / 42%
진로설계지원 (진로체험, 진학컨설팅 등)	알고있다	6명 / 50%	8명 / 67%
	참여했다	-	-
	참여하고 싶다	6명 / 50%	4명 / 33%
개인상담 (정서, 친구관계, 학습 등)	알고있다	7명 / 58%	9명 / 75%
	참여했다	2명 / 17%	-
	참여하고 싶다	3명 / 25%	3명 / 25%
부모-자녀 관계향상 프로그램	알고있다	5명 / 42%	7명 / 58%
	참여했다	3명 / 25%	2명 / 17%
	참여하고 싶다	4명 / 33%	3명 / 25%
교육활동비 지원	알고있다	5명 / 42%	5명 / 42%
	참여했다	-	2명 / 17%
	참여하고 싶다	7명 / 58%	5명 / 42%

2) 가족센터 내 다문화가족 자녀 대상 프로그램 참여 이유

- 가족센터 내 다문화가족 자녀 관련 프로그램에 참여하고자 하는 이유가 무엇인지 조사한 결과(<표35> 참조), 결혼이민자의 경우 '자녀가 친구를 사귀어 사회성을 키우도록 돕기 위해'(26명, 19%)가 가장 많았고, 그 뒤로 '학교학습(기초학습, 과제 등)을 돕기 위해'(22명, 16%)를 꼽음.
- 배우자의 경우 '자녀의 한국어 실력(언어능력)을 향상시키기 위해'(5명, 19%), '학교학습(기초학습, 과제 등)을 돕기 위해'(5명, 19%)가 가장 높은 응답율을 보여, 배우자인 결혼이민자보다 좀 더 능력 또는 학습 향상에 대한 욕구가 높음을 알 수 있음.

<표 35> 가족센터 내 다문화가족 자녀 대상 프로그램 참여 이유

(결혼이민자 N=102, 배우자 N=66)

문항	항목	결혼이민자/ N (%)	배우자/ N (%)
자녀 대상	자녀의 한국어 실력(언어능력)을 향상시키기	17명 / 12%	5명 / 19%

프로그램이 있다면 참여하는 이유는 무엇입니까?	위해		
	학교 학습(기초학습, 과제 등)을 돕기 위해	22명 / 16%	5명 / 19%
	진로 탐색이나 진로 관련 정보를 얻기 위해	7명 / 5%	2명 / 8%
	자녀가 친구를 사귀고 사회성을 키우도록 돕기 위해	26명 / 19%	1명 / 4%
	자녀의 정서적 안정과 자신감 회복을 위해	15명 / 11%	3명 / 12%
	자녀가 한국사회나 문화에 더 잘 적응하도록 돕기 위해	14명 / 10%	1명 / 4%
	부모로서 양육 방법이나 자녀 이해를 배우기 위해	17명 / 12%	3명 / 12%
	센터에서 제공하는 프로그램이 무료이고 오히려 편해서	13명 / 9%	3명 / 12%
	다문화가족이라서 어린이집/학교 등에서 참여를 권유받아서	5명 / 4%	3명 / 12%
	기타()	1명 / 1%	-

3) 가족센터 내 자녀 관련 프로그램 운영 욕구

○ 가족센터에서 자녀 관련 프로그램을 운영한다면 어느 요일과 시간대에 하면 참여가 용이한지 조사한 결과(<표35-1>참조), 결혼이민자의 경우 '토요일 오후'(21명, 28%), '토요일 오전'(17명, 23%) 순으로 나타났으며, 배우자의 경우 '토요일 오후'(6명, 30%), '평일 저녁'(4명, 30%) 순으로 나타남. 이를 통해 토요일 오후 시간대에 대한 선호도가 높음을 알 수 있음.

<표 35-1> 자녀 관련 프로그램 운영 요일과 시간에 대한 욕구

(결혼이민자 N=102, 배우자 N=66)

문항	항목	결혼이민자/ N (%)	배우자/ N (%)
귀하의 자녀 대상 프로그램 참여 시 참여하기 편한 시간대는 언제인가요?	① 평일 오후	10명 / 13%	1명 / 5%
	② 평일 저녁	7명 / 9%	4명 / 20%
	③ 토요일 오전	17명 / 23%	3명 / 15%
	④ 토요일 오후	21명 / 28%	6명 / 30%
	③ 일요일 오전	10명 / 13%	3명 / 15%

	④ 일요일 오후	10명 / 13%	3명 / 15%
--	----------	-----------	----------

○ 자녀 대상 프로그램에 참여하기 어렵다고 한 조사대상자에게 그 이유를 질문한 결과(<표35-2> 참조), 결혼이민자와 배우자 모두 '프로그램 일정이나 시간이 맞지 않아서(학교, 학원 등)'(각각 25명, 29%, 7명, 37%)를 가장 많이 꼽음. 특히 결혼이민자의 경우 두 번째로 꼽은 것이 '프로그램이 있다는 것을 몰라서'(15명, 18%)인 것으로 나타났고, 결혼이민자와 배우자 모두 '부모나 가족이 함께 참여하기 어려워서'(각각 9명, 11%, 3명, 16%)를 언급하여, 현재 운영 중인 다문화가족 자녀 대상 사업의 운영요일과 시간대 선택을 보다 신중히 해야 할 필요뿐만 아니라, 프로그램에 대한 좀 더 적극적인 홍보가 활발하게 이루어질 필요가 있음을 시사함.

<표 35-2> 자녀 대상 프로그램에 참여하기 어려운 이유

(결혼이민자 N=102, 배우자 N=66)

문 항	항 목	결혼이민자/ N (%)	배우자/ N (%)
자녀 대상 프로그램에 참여하기 어려운 이유는 무엇인가요?	① 프로그램 일정이나 시간이 맞지 않아서(학교, 학원 등)	25명 / 29%	7명 / 37%
	② 프로그램 장소가 멀거나 교통이 불편해서	6명 / 7%	3명 / 16%
	③ 프로그램이 있다는 것을 몰라서	15명 / 18%	2명 / 11%
	④ 자녀가 참여를 원하지 않아서	6명 / 7%	-
	⑤ 부모나 가족이 함께 참여하기 어려워서	9명 / 11%	3명 / 16%
	⑥ 학교나 학원 일정이 우선이라서	8명 / 9%	2명 / 11%
	⑦ 한국어가 서툴러 참여가 부담스러워서	4명 / 5%	-
	⑧ 다른 사람들과 어울리는 것이 낯설거나 불편해서	3명 / 4%	2명 / 11%
	⑨ 프로그램 내용이 자녀에게 맞지 않아서	6명 / 7%	-
	⑩ 센터나 강사에 대한 신뢰가 부족해서	2명 / 2%	-

	⑪ 이전 참여 경험이 만족스럽지 않아서	-	-
	⑫ 기타()	1명 / 1%	-

4. 자녀의 연령대별 프로그램 지원을 위한 부모의 욕구

1) 6~13세 자녀의 기초학습지원을 위한 부모의 욕구

- 자녀가 어려워하는 학습 영역이 무엇인지 조사한 결과(<표36-1> 참조), 결혼이민자는 '국어(읽기, 쓰기, 어휘력 등)'(24명, 27%), '집중력, 학습태도'(21명, 23%) 순으로 나타났고, 배우자는 '수학(기초연산, 문제이해 등)'(5명, 33%), '국어(읽기, 쓰기, 어휘력 등)'(4명, 27%) 순으로 나타남.
- 그렇다면 자녀가 왜 어려워하는지에 대한 이유를 조사한 결과(<표36-2>), 결혼이민자는 '기초학습 습관 미형성'(19명, 26%), '학습을 도와줄 시간이 부족함'(14명, 19%) 순으로 나타났고, 배우자는 '기초학습 습관 미형성', '학습의욕 부족', '학습을 도와줄 시간이 부족함', '가정 내 학습지도 방법을 잘 모름' 모두 각각 3명(18%)이 그 이유로 언급을 함. 이를 통해 자녀의 기초학습 습관을 형성하지 못한 것이 공통적으로 언급된 주된 이유임을 알 수 있음.

<표 36-1> 6-13세 자녀가 어려워하는 학습영역

(결혼이민자 N=102, 배우자 N=66)

문항	항목	결혼이민자/ N (%)	배우자/ N (%)
자녀가 어려워하는 주요 학습 영역은 무엇입니까?	① 국어(읽기·쓰기·어휘력 등)	24명 / 27%	4명 / 27%
	② 수학(기초연산, 문제이해 등)	19명 / 21%	5명 / 33%
	③ 사회·과학 등 교과 개념 이해	8명 / 9%	2명 / 13%
	④ 과제 수행이나 자기주도 학습	15명 / 17%	2명 / 13%
	⑤ 집중력·학습태도	21명 / 23%	2명 / 13%
	⑥ 기타()	3명 / 3%	-

<표 36-2> 학습의 어려움에 대한 이유

(결혼이민자 N=102, 배우자 N=66)

문항	항목	결혼이민자/ N (%)	배우자/ N (%)
자녀가 학습에서 어려움을 겪는 주요 이유는 무엇이라고 생각하십니까? (복수선택 가능)	① 한국어 이해 부족	10명 / 14%	2명 / 12%
	② 기초학습 습관 미형성	19명 / 26%	3명 / 18%
	③ 학습의욕 부족	13명 / 18%	3명 / 18%
	④ 학습을 도와줄 시간이 부족함	14명 / 19%	3명 / 18%
	⑤ 가정 내 학습지도 방법을 잘 모름	13명 / 18%	3명 / 18%
	⑥ 사교육 등 대체지원 이용이 어려움	5명 / 7%	2명 / 12%
	⑦ 기타()	-	1명 / 6%

- 그렇다면 부모로서 자녀를 돕는게 어려운지 조사한 결과(<표36-3> 참조), 결혼이민자는 78%(43명)가 '그렇다(매우 그렇다 포함)'고 하였으며, 배우자 역시 61%(8명)이 '그렇다(매우 그렇다 포함)'고 응답함.
- 구체적으로 자녀학습을 지도할 때 어떤 점이 어려운 지 조사한 결과(<표36-4> 참조), 결혼이민자는 '내가 한국어로 교과내용을 충분히 설명하기 어렵다'(25명, 28%), '시간이 부족하거나 피곤해서 도와줄 여유가 없다'(17명, 19%), '어떻게 가르쳐야 하는지 방법을 잘 모른다'(17명, 19%) 순으로 나타남. 배우자는 '어떻게 가르쳐야 하는지 방법을 잘 모른다'(5명, 33%), '아이가 배우는 교과 내용을 이해하기 어렵다'(3명, 20%) 순으로 나타남. 따라서 이들에게 자녀의 학교 교과 내용에 대한 전달 및 이해 과정이 필요하고, 이것을 자녀에게 어떠한 방식으로 전달해야 하는지에 대한 학습코칭이 필요함을 시사함.
- 자녀학습을 위해 이용하고 있는 방법이 무엇인지 조사한 결과(<표36-5> 참조), 결혼이민자와 배우자 모두 '가정에서 스스로 공부하도록 지도한다'(각각 22명, 28%, 6명, 40%)를 가장 많이 언급하여, 자녀학습을 어려워하고, 어떻게 해야 하는지 모르다는 조사결과와 연결지을 때 향후 이와 같은 가정의 자녀 학습향상이 어려울 수밖에 없음을 예측할 수 있음. 반면 가정에서의 학습지도가 어려운 점에 따라 '사교육을 이용한다'(22명, 28%), '지역아동센터, 가족센터, 학교 보충수

업을 이용한다'(15명, 19%) 역시 높게 언급된 점에 비추어 다문화가족 자녀 대상 기초학습지도 시 자녀뿐만 아니라 결혼이민자가 가정 내 학습을 연결지어 진행할 수 있도록 교과내용 이해와 지도방법을 알려주는 것이 필요함을 시사함.

특히 배우자의 경우 '부모가 직접 과제를 도와준다'(3명, 20%)는 경우가 두 번째로 언급된 점에 비추어, 아내인 결혼이민자의 학습지도 어려움을 해소해 주기 위한 노력을 하고 있음을 알 수 있으나, 배우자 역시 '어떻게 가르쳐야 하는지 잘 모르겠다'라는 어려움을 호소하고 있어, 결혼이민자뿐만 아니라 배우자(아버지) 대상으로도 자녀학습 코칭 지원이 이루어질 필요가 있음.

<표 36-3> 부모로써 자녀를 돕기 어려운 정도

(결혼이민자 N=11/102, 배우자 N=11/66)

문항	항목	결혼이민자/ N (%)	배우자/ N (%)
부모로써 자녀를 돕는게 어려우십니까?	① 매우 그렇다	7명 / 13%	2명 / 15%
	② 그렇다	36명 / 65%	6명 / 46%
	③ 그렇지 않다	11명 / 20%	4명 / 31%
	④ 전혀 그렇지 않다	1명 / 2%	1명 / 8%

<표 36-4> 자녀학습지도의 어려운 이유

(결혼이민자 N=102, 배우자 N=66)

문항	항목	결혼이민자/ N (%)	배우자/ N (%)
자녀 학습을 지도할 때 구체적으로 어떤 점이 가장 어렵습니까? (복수선택 가능)	① 내가 한국어로 교과내용을 충분히 설명하기 어렵다	25명 / 28%	2명 / 13%
	② 아이가 배우는 교과 내용(사회, 과학 등)을 이해하기 어렵다	10명 / 11%	3명 / 20%
	③ 시간이 부족하거나 피곤해서 도와줄 여유가 없다	17명 / 19%	2명 / 13%
	④ 어떻게 가르쳐야 하는지 방법을 모른다	17명 / 19%	5명 / 33%
	⑤ 아이가 학습 의욕이 낮아 격려가 어렵다	11명 / 12%	2명 / 13%
	⑥ 교사나 학교와 소통이 어려워 학습 정보를 얻기 힘들다	9명 / 10%	1명 / 7%

<표 36-5> 자녀학습을 위해 이용하고 있는 방법

(결혼이민자 N=102, 배우자 N=66)

문항	항목	결혼이민자/ N (%)	배우자/ N (%)
자녀의 학습을 위해 현재 어떤 방법을 사용하고 있습니까? (복수선택 가능)	① 학교 수업 외에는 별다른 지원을 하지 않는다	9명 / 11%	1명 / 7%
	② 가정에서 스스로 공부하도록 지도한다	22명 / 28%	6명 / 40%
	③ 부모가 직접 과제를 도와준다	11명 / 14%	3명 / 20%
	④ 사교육(학원, 과외 등)을 이용한다	22명 / 28%	2명 / 13%
	⑤ 지역아동센터가족센터학교의 보충수업을 이용한다	15명 / 19%	3명 / 20%

- 가족센터가 자녀의 학습향상을 위해 어떤 지원이 필요하다고 여기는지에 대한 조사결과(<표36-6> 참조), 결혼이민자와 배우자 모두 '학습 습관, 집중력 향상 프로그램'(각각 24명, 32% < 8명, 35%)이 우선적으로 필요하다고 함. 그 뒤로 결혼이민자는 '기초학습 보충 프로그램'(17명, 22%), '학습멘토링'(16명, 21%) 순으로 필요하다고 하였으며, 배우자는 '한국어 기반 교과 이해 프로그램'(5명, 22%), '학습멘토링'(4명, 17%) 순으로 필요하다고 함.

<표 36-6> 자녀학습 향상을 위한 지원 프로그램의 필요성

(결혼이민자 N=102, 배우자 N=66)

문항	항목	결혼이민자/ N (%)	배우자/ N (%)
자녀의 학습향상을 위해 어떤 지원이 필요하다고 생각하십니까? (복수선택 가능)	① 기초학습 보충 프로그램	17명 / 22%	3명 / 13%
	② 한국어 기반 교과 이해 프로그램	10명 / 13%	5명 / 22%
	③ 학습 습관·집중력 향상 프로그램	24명 / 32%	8명 / 35%
	④ 학습 멘토링	16명 / 21%	4명 / 17%
	⑤ 온라인 학습 지원 서비스	9명 / 12%	3명 / 13%

- 부모로서 자녀학습을 지원하기 위해 어떤 도움이 필요한지에 대한 조사결과(<표 36-7>참조), 결혼이민자와 배우자 모두 '가정에서 활용 가능한 학습지도 자료 공유'(각각 24명, 25%, 6명, 38%)가 우선적으로 필요하다고 하였음. 그 뒤로 결혼이민자는 '자녀 학습 수준을 진단해 주는 검사 서비스'(18명, 19%), '자녀와 함께 참여할 수 있는 학습프로그램'(16명, 16%) 순으로 필요성을 언급하였으며, 배우자는 '자녀와 함께 할 수 있는 프로그램'(3명, 19%), '센터에서 정기적으로 학습 관련 정보를 제공'(3명, 19%) 순으로 필요성을 언급함.
- 마지막으로 부모로서 자녀학습을 도우면 어떤 감정이 드는지를 조사한 결과(<표 36-8>참조), 결혼이민자는 '아이와 다투는 일이 많아 힘들다'(21명, 30%), '노력하지만 성과가 없어 답답하다'(16명, 23%) 순으로 언급되었고, 배우자는 '점차 익숙해지고 있다'(4명, 29%), '부담이 크고 자신이 없다'(3명, 21%)로 나타나 부와 모의 감정이 다를 수 있음. 이에 따라 결혼이민자에게는 자녀와의 대화법이나 자신이 할 수 있는 것과 없는 것을 구분하는 것이 필요하며, 특히 이 때 아버지의 역할이 좀 더 긍정적인 영향을 미칠 수 있도록 아버지가 자녀학습을 자신있게 도울 수 있도록 하는 학습코칭이 좀 더 적극적으로 이루어질 필요성이 있음.

<표 36-7> 자녀학습 지원을 위해 필요로 하는 도움

(결혼이민자 N=102, 배우자 N=66)

문 항	항 목	결혼이민자/ N (%)	배우자/ N (%)
부모로서 자녀 학습을 지원하기 위해 어떤 도움을 가장 받고 싶으십니까? (복수선택 가능)	① 한국어로 교과 개념을 이해할 수 있는 부모교육	13명 / 13%	1명 / 6%
	② 가정에서 활용 가능한 학습지도 자료 공유	24명 / 25%	6명 / 38%
	③ 상담·컨설팅을 통한 학습 고민 상담	14명 / 14%	1명 / 6%
	④ 자녀 학습 수준을 진단해주는 검사 서비스	18명 / 19%	2명 / 13%
	⑤ 자녀와 함께 참여할 수 있는 학습 프로그램	16명 / 16%	3명 / 19%
	⑥ 센터에서 정기적으로 학습 관련 정보를 제공	12명 / 12%	3명 / 19%

<표 36-8> 자녀학습 도움에 대한 부, 모로서의 감정

(결혼이민자 N=69/102, 배우자 N=14/66)

문항	항목	결혼이민자/ N (%)	배우자/ N (%)
부모로서 자녀 학습을 도우며 느끼는 감정은 어떠합니까?	① 부담이 크고 자신이 없다	10명 / 14%	3명 / 21%
	② 노력하지만 성과가 없어 답답하다	16명 / 23%	2명 / 14%
	③ 아이와 다투는 일이 많아 힘들다	21명 / 30%	2명 / 14%
	④ 점차 익숙해지고 있다	14명 / 20%	4명 / 29%
	⑤ 자신있게 도와줄 수 있다	6명 / 9%	2명 / 14%
	⑦ 기타()	2명 / 3%	1명 / 7%

2) 8~19세 자녀의 진로설계지원을 위한 부모의 욕구

① 진로설계지원(진로) 관련 욕구

- 자녀가 자신의 진로(장래희망)에 대해 얼마나 알고 있다고 생각하는지 조사한 결과(<표37-1> 참조), 결혼이민자와 배우자 모두 '어느 정도 알고 있다'(각각 16명, 33%, 3명, 43%)고 하였음. 그러나 결혼이민자의 36%(18명)는 '거의 또는 전혀 모른다'고 하였으며, 배우자의 28%(2명) 역시 '거의 또는 전혀 모른다'고 하였음.
- 자녀가 진로(직업)에 대한 정보를 어디에서 얻고 있다고 여기는지 조사한 결과(<표37-2>참조), 결혼이민자와 배우자 모두 '학교(진로교사, 담임 등)'(각각 24명, 38%, 4명, 44%)를 꼽아, 부 또는 모 모두 학교에 대한 의존성이 가장 높은 것으로 나타남. 그 뒤로 결혼이민자는 '인터넷, 유튜브 등 매체'(13명, 21%)를 언급하였고, 배우자는 '자녀의 친구나 또래'(2명, 22%)를 언급하여 실제 부, 모 자체가 자녀의 진로 논의 대상이 아닌 것으로 인식하고 있음을 알 수 있음.
- 자녀가 진로탐색 또는 준비과정에서 어려움을 경험하고 있는지에 대한 인식 조사결과(<표37-3>참조), 과반수 이상이 결혼이민자와 배우자 모두 '보통이다'(각각

28명, 56%, 5명, 63%)를 언급하였고, 이를 통해 어렵다고 인식하는 경우보다 어렵지 않다고 인식하는 경우가 더 많은 것으로 나타남.

- 그럼에도 불구하고 자녀가 진로 탐색을 함에 있어 어떤 어려움이 있다고 여기는지를 조사한 결과(<표37-4>참조), 결혼이민자와 배우자 모두 '다양한 정보를 접할 기회가 없다'(각각 12명, 24%, 3명, 33%)를 우선적으로 언급하였음. 또한 결혼이민자는 '자녀가 무엇을 좋아하는지 잘 모르겠다'(12명, 24%)를 꼽았고, 배우자 역시 '자녀의 적성이나 강점을 찾기 어렵다'(2명, 22%)를 꼽아 자녀의 적성 또는 강점을 알 수 있도록 돕는 프로그램이 지원될 필요가 있음을 시사함.
- 부모로서 자녀의 진로 탐색 도움에 어려움이 어느 정도인지 조사한 결과(<표 37-5>참조), 결혼이민자의 41%(20명)가 '(매우)그렇다'고 하였으며, 배우자의 44%(4명)가 '그렇다'고 언급함.
- 그렇다면 어떤 점이 어려운지 조사한 결과(<표37-6> 참조), 결혼이민자는 '진로 관련 정보(학교·직업 등)를 잘 모른다'(15명, 26%), '한국어가 부족해 관련 자료를 이해하기 어렵다'(12명, 21%) 순으로 나타났으며, 배우자는 '시간적 여유가 없어 상담이나 프로그램 참여가 어렵다'(3명, 38%), '진로 관련 정보(학교, 직업 등)를 잘 모른다'(2명, 25%) 순으로 나타나 다문화가족의 자녀진로 탐색 과정에서 부모의 역할이 배제되고 있음을 예측할 수 있음. 이에 다각도로 부모가 자녀의 강점 등에 대해 이해하고 진로를 함께 모색할 수 있도록 하는 지원 프로그램이 필요하며, 특히 결혼이민자가 이를 쉽게 이해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한 다양한 방법이 뒤따라야 함을 시사함.
- 마지막으로 자녀진로설계지원을 위해 센터에서 진행하는 프로그램별 필요 정도에 대한 조사 결과(<표37-7> 참조), 결혼이민자는 '자녀의 적성, 흥미를 탐색할 수 있는 검사(24명, 26%)', '다양한 직업체험 프로그램(20명, 22%)' 순으로 나타났고, 배우자는 '다양한 직업체험 프로그램'(4명, 31%), '진로 관련 정보 제공(학교, 진학, 자격증 등)'(3명, 23%) 순으로 나타나, 부, 모 모두 다양한 직업체험을 할 수 있도록 하면 좋겠다는 욕구가 높음을 알 수 있음.

<표 37-1> 자녀의 진로(장래희망) 인식 여부

(결혼이민자 N=49/102, 배우자 N=7/66)

문항	항목	결혼이민자/ N (%)	배우자/ N (%)
귀하의 자녀는 자신의 진로(장래희망)에 대해 얼마나 알고 있다고 생각하십니까?	① 전혀 모른다	6명 / 12%	1명 / 14%
	② 거의 모른다	12명 / 24%	1명 / 14%
	③ 어느 정도 알고 있다	16명 / 33%	3명 / 43%
	④ 구체적으로 생각하고 있다	11명 / 22%	1명 / 14%
	⑤ 매우 명확하다	4명 / 8%	1명 / 14%

<표 37-2> 자녀가 진로에 대한 정보를 어디에서 얻고 있는지에 대한 인식

(결혼이민자 N=102, 배우자 N=66)

문항	항목	결혼이민자/ N	배우자/ N
귀하의 자녀는 진로(직업)에 대한 정보를 주로 어디서 얻고 있습니까? (복수선택 가능)	① 학교(진로수업·담임교사 등)	24명 / 38%	4명 / 44%
	② 부모나 가족	11명 / 17%	-
	③ 자녀의 친구나 또래	10명 / 16%	2명 / 22%
	④ 인터넷·유튜브 등 매체	13명 / 21%	1명 / 11%
	⑤ 센터나 지역기관 프로그램	5명 / 8%	2명 / 22%

<표 37-3> 자녀의 진로탐색 또는 준비과정의 어려움 정도

(결혼이민자 N=50/102, 배우자 N=8/66)

문항	항목	결혼이민자/ N (%)	배우자/ N (%)
귀하의 자녀가 진로를 탐색하거나 준비하는 과정에서 어려움을 겪고 있습니까?	① 매우 그렇다	4명 / 8%	-
	② 그렇다	7명 / 14%	2명 / 25%
	③ 보통이다	28명 / 56%	5명 / 63%
	④ 그렇지 않다	10명 / 20%	-
	⑤ 전혀 그렇지 않다	1명 / 2%	1명 / 13%

<표 37-4> 자녀의 진로탐색 또는 준비과정에서 어려움

(결혼이민자 N=102, 배우자 N=66)

문항	항목	결혼이민자/ N	배우자/ N
그렇다면 구체적으로 어떤 어려움이 있습니까? (복수선택 가능)	① 자신이 무엇을 좋아하는지 잘 모른다	12명 / 24%	1명 / 11%
	② 적성이나 강점을 찾기 어렵다	10명 / 20%	2명 / 22%
	③ 다양한 직업정보를 접할 기회가 부족하다	12명 / 24%	3명 / 33%
	④ 부모나 가족과 진로 대화가 부족하다	9명 / 18%	1명 / 11%
	⑤ 한국어가 서툴러 진로 정보 이해가 어렵다	4명 / 8%	1명 / 11%
	⑥ 학교 진로상담이 부족하다	4명 / 8%	1명 / 11%

<표 37-5> 부모로서 자녀의 진로 도움에 대한 어려움 정도

(결혼이민자 N=48/102, 배우자 N=9/66)

문항	항목	결혼이민자/ N (%)	배우자/ N (%)
부모로서 자녀의 진로를 도와주는 데 어려움을 느끼십니까?	① 매우 그렇다	4명 / 8%	-
	② 그렇다	16명 / 33%	4명 / 44%
	③ 보통이다	21명 / 44%	3명 / 33%
	④ 그렇지 않다	6명 / 13%	2명 / 22%
	⑤ 전혀 그렇지 않다	1명 / 2%	-

<표 37-6> 자녀진로 도움에 있어 어려운 이유

(결혼이민자 N=102, 배우자 N=66)

문항	항목	결혼이민자/ N	배우자/ N
그렇다면 어떤 점이 가장 어렵습니까? (복수선택 가능)	① 진로 관련 정보(학교·직업 등)를 잘 모른다	15명 / 26%	2명 / 25%
	② 한국어가 부족해 관련 자료를 이해하기 어렵다	12명 / 21%	1명 / 13%
	③ 자녀가 진로 이야기를 잘 하지 않는다	7명 / 12%	-
	④ 부모와 자녀의 생각이 달라서 대화가 어렵다	7명 / 12%	2명 / 25%

	⑤ 부모 스스로 직업경험이 적어 조언하기 어렵다	12명 / 21%	-
	⑥ 시간적 여유가 없어 상담이나 프로그램 참여가 어렵다	5명 / 9%	3명 / 38%

<표 37-7> 자녀 진로설계지원 프로그램별 필요 정도

(결혼이민자 N=102, 배우자 N=66)

문항	항목	결혼이민자/ N	배우자/ N
귀하의 자녀의 진로설계를 위해 어떤 지원이 필요하다고 생각하십니까? (복수선택 가능)	① 자녀의 적성·흥미를 탐색할 수 있는 검사	24명 / 26%	2명 / 15%
	② 다양한 직업 체험 프로그램	20명 / 22%	4명 / 31%
	③ 진로 관련 멘토링(직업인, 대학생 등)	12명 / 13%	2명 / 15%
	④ 부모 대상 '진로지도법' 교육	6명 / 6%	-
	⑤ 자녀-부모가 함께하는 진로 설계 프로그램	9명 / 10%	1명 / 8%
	⑥ 진로 상담(개별 또는 그룹형)	10명 / 11%	1명 / 8%
	⑦ 진로 관련 정보 제공(학교, 진학, 자격증 등)	12명 / 13%	3명 / 23%

② 진로설계지원(정서) 관련 욕구

○ 자녀가 불안, 걱정, 스트레스 등을 어느 정도 갖고 있다고 여기는지를 조사한 결과(<표38-1> 참조), 40~60%의 결혼이민자와 배우자 모두 '전혀 없다'고 하였으나, 30~40%의 결혼이민자와 배우자 모두 각 항목별로 '약간 있다'고 하였음. 그 중에서 '자주 있다'고 언급한 경우가 많지는 않으나 1~3명 정도 있는 것으로 나타나 부모로 하여금 아동·청소년 심리·정서의 중요성과 지원에 대한 홍보를 보다 적극적으로 시행하여, 이들을 적극적으로 도울 수 있도록 하는 것이 필요함.

○ 자녀가 정서적 어려움을 경험하고 있다면 그 이유가 무엇인지 조사한 결과(<표 38-2> 참조), 결혼이민자는 '부모와 대화가 부족해서'(12명, 32%), '한국어, 학습 이해가 어렵거나 학업부담이 커서'(8명, 22%) 순으로 나타났고, 배우자는 '학교생활 적응이 어려워져서', '친구관계에 갈등이 있어서', '한국어, 학습이해가 어렵거나

학업부담이 커서'(각각 2명, 33%) 모두 동일하게 언급되었다. 특히 결혼이민자는 배우자보다 '부모와의 대화 부족'으로 인한 가정 또는 자신의 탓을 돌리는 경향이 있음을 엿볼 수 있음. 이에 정서적 어려움을 경험하고 있는 자녀 지원 시 결혼이민자인 어머니의 정서지원도 함께 이루어질 필요성이 있음을 시사함.

- 향후 자녀 대상 정서지원 프로그램이 있다면 어떤 형태로 이루어지면 좋은지에 대한 조사결과(<표38-3>참조), 결혼이민자는 '그룹 상담(또래상담)'(13명, 26%), '개인상담'(11명, 22%) 순으로 나타났고, 배우자는 '개인상담'(4명, 44%), '부모-자녀 동반상담'(2명, 22%) 순으로 나타남.

<표 38-1> 자녀의 정서에 대한 인식 정도

(결혼이민자 N=40/102, 배우자 N=8/66)

문항	항목	결혼이민자/ N (%)	배우자/ N (%)	
귀하의 자녀가 다음과 같은 감정을 얼마나 자주 느꼈다고 생각하나요?	1) 불안, 걱정	전혀 없다	16명 / 40%	3명 / 38%
		약간 있다	14명 / 35%	3명 / 38%
		자주 있다	4명 / 10%	-
		매우 자주 있다	1명 / 3%	-
		잘 모르겠다	5명 / 13%	2명 / 25%
	2) 우울, 슬픔	전혀 없다	24명 / 62%	4명 / 57%
		약간 있다	12명 / 31%	1명 / 14%
		자주 있다	2명 / 5%	1명 / 14%
		매우 자주 있다	-	-
		잘 모르겠다	1명 / 3%	1명 / 14%
	3) 스트레스	전혀 없다	15명 / 38%	1명 / 14%
		약간 있다	19명 / 48%	3명 / 43%
		자주 있다	4명 / 10%	1명 / 14%
		매우 자주 있다	1명 / 3%	1명 / 14%
		잘 모르겠다	1명 / 3%	1명 / 14%
	4) 자신감 부족	전혀 없다	21명 / 54%	1명 / 17%
		약간 있다	13명 / 33%	2명 / 33%
		자주 있다	3명 / 8%	1명 / 17%
		매우 자주 있다	1명 / 3%	1명 / 17%
		잘 모르겠다	1명 / 3%	1명 / 17%

	5) 친구, 또래 관계 불편	전혀 없다	25명 / 64%	3명 / 43%
		약간 있다	12명 / 31%	2명 / 29%
		자주 있다	1명 / 30%	-
		매우 자주 있다	-	1명 / 14%
		잘 모르겠다	2명 / 5%	1명 / 14%

<표 38-2> 자녀가 정서적 어려움을 경험하고 있는 이유

(결혼이민자 N=102, 배우자 N=66)

문항	항목	결혼이민자/ N	배우자/ N
귀하의 자녀가 정서적 어려움을 겪는 이유는 무엇이라고 생각하는가요? (복수선택 가능)	① 학교 생활 적응이 어려워서	2명 / 5%	2명 / 33%
	② 친구 관계에서 갈등이 있어서	6명 / 16%	2명 / 33%
	③ 한국어/학습 이해가 어렵거나 학업 부담이 커서	8명 / 22%	2명 / 33%
	④ 부모와 대화가 부족해서	12명 / 32%	-
	⑤ 다문화, 언어, 문화 차이로 인한 어려움이 커서	4명 / 11%	-
	⑥ 진로나 진학 문제에 대한 불안이 있어서	5명 / 14%	-

<표 38-3> 자녀 대상 필요로 하는 정서지원 프로그램

(결혼이민자 N=102, 배우자 N=66)

문항	항목	결혼이민자/ N	배우자/ N
정서지원 프로그램이 있다면 어떤 형태가 가장 도움이 될 것 같습니까? (복수선택 가능)	① 개인 상담(전문 상담사1:1)	11명 / 22%	4명 / 44%
	② 그룹 상담(또래 포함)	13명 / 26%	1명 / 11%
	③ 부모-자녀 동반 상담	8명 / 16%	2명 / 22%
	④ 온라인/비대면 상담	5명 / 10%	-
	⑤ 또래-멘토링 프로그램	5명 / 10%	1명 / 11%
	⑥ 감정조절·스트레스 관리 워크숍	6명 / 12%	1명 / 11%
	⑦ 기타()	2명 / 4%	-

3) 13세 이하를 자녀를 둔 자녀의 언어발달지원을 위한 부모의 욕구

- 자녀의 언어발달과 관련해 어떤 어려움이 있는지를 조사한 결과(<표39-1>, 결혼이민자와 배우자 모두 '어휘력이 부족하다'(각각 13명, 25%, 3명, 38%)를 가장 우선적으로 꼽았으며, 두 번째로 '발음이 부정확하거나 문장이 짧다'(각가 11명, 22%, 2명, 25%)를 언급함.
- 자녀의 이러한 어려움이 있는 이유를 질문한 결과, 결혼이민자는 '언어자극(대화, 책읽기 등)이 부족해서'(17명, 40%), '부모의 한국어 사용이 서툴러서'(12명, 28%) 순으로 나타났고, 배우자의 과반수는 '부모의 한국어 사용이 서툴러서'(2명, 50%)를 꼽았음.
- 자녀의 언어발달 서비스를 기다리는 동안(또는 기다린다고 가정했을 때) 어떤 점이 가장 어렵다고 생각하는지 조사한 결과, 결혼이민자와 배우자 모두 '대기기간이 너무 길어서'(각각 13명, 33%, 3명, 43%)를 꼽았음.
- 자녀의 언어발달 서비스 대기 기간 동안 필요한 지원서비스가 무엇인지 조사한 결과(<표39-4>참조), 결혼이민자와 배우자 모두 '부모용 언어지도 방법 교육'(각각 15명, 25%, 2명, 20%), '온라인(비대면) 언어놀이 자료 제공'(각각 10명, 17%, 2명, 20%) 순으로 나타남.

<표 39-1> 자녀의 언어발달 관련 어려움

(결혼이민자 N=102, 배우자 N=66)

문항	항목	결혼이민자/ N	배우자/ N
귀하의 자녀의 언어발달과 관련하여 어떤 어려움이 있습니까? (복수선택 가능)	① 발음이 부정확하거나 문장이 짧다	11명 / 22%	2명 / 25%
	② 어휘력이 부족하다	13명 / 25%	3명 / 38%
	③ 문장 표현이 어색하거나 문법이 틀리다	9명 / 18%	1명 / 13%
	④ 말하기보다 듣기(이해)가 더 어렵다	5명 / 10%	-

	⑤ 부모와 언어가 달라 대화가 힘들다	5명 / 10%	1명 / 13%
	⑥ 학교 수업 내용 이해가 어렵다	6명 / 12%	1명 / 13%
	⑦ 또래 친구들과의 대화가 원활하지 않다	2명 / 4%	-

<표 39-2> 자녀의 언어발달 어려움 이유

(결혼이민자 N=43/102, 배우자 N=4/66)

문항	항목	결혼이민자/ N (%)	배우자/ N (%)
이러한 어려움을 느끼는 이유는 무엇이라고 생각하십니까?	① 부모의 한국어 사용이 서툴러서	12명 / 28%	2명 / 50%
	② 가정 내 모국어 사용이 많아서	3명 / 7%	-
	③ 언어지극(대화, 책읽기 등)이 부족해서	17명 / 40%	1명 / 25%
	④ 말하기보다 듣기(이해)가 더 어렵다	9명 / 21%	-
	⑤ 전문적인 언어지도 기회가 없어서	2명 / 5%	1명 / 25%

<표 39-3> 언어발달 서비스 수혜 과정에 있어서의 어려움

(결혼이민자 N=102, 배우자 N=66)

문항	항목	결혼이민자/ N	배우자/ N
언어발달서비스를 기다리는 동안 (또는 기다린다고 가정했을 때) 어떤 점이 가장 어렵다고 생각하십니까? (복수선택 가능)	① 대기기간이 너무 길어서	13명 / 33%	3명 / 43%
	② 대기 중 아이의 언어발달이 더 늦어질까 걱정되어서	6명 / 15%	-
	③ 대기 중 대체 프로그램이나 정보가 없어서	4명 / 10%	-
	④ 대기 순번.진행상황을 잘 몰라서	3명 / 8%	1명 / 14%
	⑤ 자녀가 서비스를 기다리며 흥미를 잃어서	5명 / 13%	1명 / 14%
	⑥ 경제적 부담(사설 이용 등)이 커서	7명 / 18%	1명 / 14%
	⑦ 기타()	2명 / 5%	1명 / 14%

<표 39-4> 언어발달 서비스 대기 기간 동안 필요한 지원서비스 욕구

(결혼이민자 N=102, 배우자 N=66)

문항	항목	결혼이민자/ N	배우자/ N
서비스를 기다리는 동안 어떤 지원이 있다면 도움이 될 것 같습니까? (복수선택 가능)	① 온라인(비대면) 언어놀이 자료 제공	10명 / 17%	2명 / 20%
	② 부모용 언어지도 방법 교육	15명 / 25%	2명 / 20%
	③ 임시 그룹형 프로그램(단기 교실)	9명 / 15%	2명 / 20%
	④ 언어발달 관련 상담·컨설팅	9명 / 15%	-
	⑤ 대기자 우선 안내 서비스(문자전화 공지)	3명 / 5%	1명 / 10%
	⑥ 발달검사 진행	9명 / 15%	1명 / 10%
	⑦ 전문가 상담(병원 등)	4명 / 7%	2명 / 20%
	⑧ 아무것도 하지 않음	1명 / 2%	-

결론

1. 다문화가족(결혼이민자와 배우자)의 가족센터 인식 조사결과에 따른 결론

○ 결혼이민자와 배우자 모두 친구나 지인 등을 통해 센터를 알게 되었다는 것이 높다는 점에 비추어, 이들이 지역 정보 습득의 취약함을 알 수 있었음. 앞으로 지역 내 신규 다문화가족 참여를 유도하기 위한 다양한 방면의 홍보 방안이 필요하나, 특히 지인을 통한 소개가 좀 더 우세한 점에 비추어, 기본적으로 센터 회원으로 소속된 결혼이민자 또는 배우자가 '친구 또는 가족 초대의 날' 등의 프로그램을 통해 센터 유입의 경로를 확대할 필요가 있음.

○ 대체로 센터 프로그램에 참여한 결혼이민자와 배우자 모두 프로그램에 대한 만족도가 높은 것으로 나타났으나, 실제 센터 및 프로그램에 대해 알고 있어도 참여하지 않는 이유로 '시간이 맞지 않아서' 또는 '프로그램 대상자가 아니라서'를 언급하였음. 따라서 생애주기별 다문화가족의 욕구에 맞는 다양한 프로그램 개발이 필요할 뿐만 아니라 이들이 참여할 수 있는 시간대를 고려(주말)하여 서비스 제공이 이루어질 필요가 있음.

2. 다문화가족 내 결혼이민자의 한국생활과 가족생활 적응 관련 조사결과에 따른 결론

○ 조사대상자인 결혼이민자의 대다수가 5~10년 이내 또는 10년 이상 한국에 거주한 것으로 나타나 지역 내 중·장기 입국 다문화가족에 초점을 맞춘 프로그램이 좀 더 확대 운영될 필요가 있음을 알 수 있었음.

○ 한국생활 적응에 있어 가장 어려운 점으로 여전히 '언어 소통'을 꼽고 있으며, 그 뒤로 '자녀양육 및 교육'임. 특히 일자리, 취업에 도움이 될 수 있는 한국어교육이 좀 더 많이 지원될 필요가 있으며, 자녀의 연령에 맞춘 부모교육 또는 코칭이 지원될 필요가 있음. 특히 자녀와의 대화법이나 자녀의 게임, 스마트폰, 인터넷 사용에 관한 조율의 어려움 호소가 높은 점에 비추어 최근 급변하는 AI 또는 디지털 사용 및 문화에 대한 교육 지원이 이루어져야 함.

○ 배우자(가족)와의 관계에 있어 '자녀양육과 교육 문제 조율'을 꼽고 있어 이와 관련된 부부의사소통 훈련을 좀 더 확대 운영할 필요가 있음.

○ 조사대상자의 대다수가 경제적 어려움을 호소하고 있고, 미래 경제적 준비 및 연금 저축 등의 부족으로 인한 불안을 경험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나 중장년기에 속한 결혼이주여성을 대상으로 취업 및 재무 관련된 정보 제공 및 노후 준비를 어떻게 해야 하는지에 대한 교육이 제공될 필요가 있음.

3. 다문화가족 내 배우자의 가족생활 적응 관련 조사결과에 따른 결론

○ 배우자가 가장 필요로 하는 프로그램이 생애주기별 부모교육과 퇴직 등 노후 준비교육에 관한 것으로 나타난 점에 비추어, 이러한 주제 프로그램 개발 및 이들의 참여 유입 경로를 확대하기 위한 노력이 지속적으로 진행될 필요가 있음.

○ 특히 다른 어떤 프로그램보다 '문화체험' 프로그램 참여가 높은 점에 비추어 아버지가 자녀와 함께 하는 문화체험 활동을 확대, 운영할 필요가 있음.

4. 다문화가족(결혼이민자와 배우자)의 자녀 관련 조사결과에 따른 결론

○ 다문화가족(결혼이민자와 배우자)의 센터 내 자녀 관련 프로그램 참여 이유로 가장 많이 꼽은 것은 '자녀의 사회성 향상'과 '학교 학습 도움'을 이유로 들고 있음. 따라서 자녀 관련 사업 운영 시 학교에서 진행하는 학습을 돕는 것뿐만 아니라 또래 친구들과의 사회성 향상을 위한 지원 프로그램이 좀 더 활성화될 필요가 있음. 또한 자녀의 집중력 또는 학습태도를 함양하기 위한 욕구가 높은 점에 비추어 이와 관련되어 다양한 방법을 적용할 수 있는 프로그램 개발 또한 필요함.

○ 다문화가족 내 결혼이민자와 배우자 모두 자녀의 학습과 진로를 돕고 싶어하나, 어떻게 해야 하는지에 대한 방법을 모르겠다고 한 경우가 높은 점에 비추어 다문화가족 자녀 대상 프로그램 운영 시 자녀만이 아니라 부 또는 모가 함께 할 수 있는 프로그램이 병행될 필요가 있음. 특히 아버지가 자녀의 학습 또는 진로 탐색에 함께 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한 방안도 지속적으로 모색, 운영될 필요가 있음.